

北韓 歷史觀에 나타난 唯物論*

— 정통성 확립을 위한 『歷史圖有化』 과정을 중심으로 —

金 英 秀

〈 目 次 〉

I. 序 論

II. 歷史觀의 變遷段階와 變化要因

1. 역사관 변화의 政治的 背景

2. 역사관의 變遷過程

III. 唯物論의 歷史解釋의 주요 내용

1. 概 要

2. 북한 唯物論의 흐름 및 주요 人物

IV. 評 價

V. 結 論

I. 序 論

북한에서는 고조선에서부터 20세기 초까지의 역사의 발전을 觀念論과 唯物論의 투쟁의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 이런 입장은 주체사관에 의해 집필된 『조선전사』, 그리고 대표적인 철학서인 최봉익의 『조선철학사 개요』(1986)¹⁾, 정성철의 『조선철학사』(1987) 및 1987년판 『조선통사』에

* 본 연구는 1991年度 教育部 社會主義圖研究支援金を 받아 西江大學校 東亞研究所가 주관하여 이루어진 것임

1) 남한에는 이 책의 두 종류의 영인본이 있는데, “주체사상에 의한 『조선철학사』(1962)의 지양”이란 부제를 붙인 한마당본(1989)과, 책명을 『또 하나의 우리철학사』로 개명한 은누리본(1989)이 그것이다. 한마당본의 부제연도는 초판(1960)이나 재판(1961)연도의 誤記이다.

잘 나타나 있다. 특히 최봉익의 『조선철학사 개요』는 현대사를 제외한 조선의 전역사를 노예사회의 철학, 봉건사회의 철학, 봉건사회 분해기의 철학, 자본주의적 관계의 발전기 철학으로 나누어 唯物論的 觀點에서 해석하고 있다.²⁾

이 책에서는 “지난날 세계관의 발전력사는 상반되는 두 철학조류인 유물론과 관념론, 변증법과 형이상학의 투쟁력사였습니다”³⁾라는 金正日 敎示를 고딕체로 인용한 후, 조선철학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중요부분만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우리 나라 철학사발전에서 중요특징을 이루고있는 것은 유물론이나 변증법적 사유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중단됨이 없이 줄기차게 발전하여왔다는데 있다. 일반적으로 보면 많은 나라들에서는 유물론철학은 그 발전과정에 중단되는 일이 많았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력사발전의 매 단계의 합법칙성에 따라 고대유물론, 중세기에 발전한 유물론, 근세유물론으로 중단없이 련면하게 발전하여왔다...”

다음으로 우리 나라 철학사발전에서 중요특징은 유물론철학이 많은 경우에 변증법사상과 밀착되어있으며 특히 진보적인 사회정치사상과 밀접한 련관을 가지고 발전해왔다는데 있다. 우리 나라 철학사에서 대표적인 유물론적사상조류로 볼 수 있는 기일원론철학은 그 자체내에 언제나 변증법적사상을 내포하고 있으며 사회정치사상에서도 대체로 진보적이다.

2) 이 책 머리말에는, “...주체의 철학사관에서 기초하여 우리 나라에서 고대 노예사회로부터 근세에 이르는 기간 철학적 사유의 발전력사와 그 합법칙성을 연구체계화 하는데 힘을 기울였다”는 發刊趣旨를 밝히고 있다.

3) 『조선철학사 개요』(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6; 서울: 한마당, 1989), p.337(인용면수는 영인본 면수를 가리킴)에 실린 이 거절은 김정일이 '1982년 3월 31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70돌기념 전국주체사상토론회에 보낸 논문'인 “주체사상에 대하여”의 일부분이다.(이하 모든 북한원전은 원문 그대로 인용함) 『조선중앙년감』(1983년판)에 실린 원문은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편, 『북한자료집 김정일 저작選』(서울: 경남대학교 출판부, 1991), pp.66-122 참조.

이러한 실례를 리규보, 김시습, 서경덕, 홍대용, 최한기 등의 기일원론적 유물론철학에서 충분히 찾아볼수 있다.

이것은 우리 나라에서의 유물론철학은 자기 발전의 독자적인 길을 개척하면서 해당 시기 사회진보세력의 리해관계를 잘 반영하였다는 것을 말하여주는 것이다. 적지않은 나라들에서의 철학발전의 역사를 보면 유물론이 변증법과 배리되어있거나 형이상학과 결합된것들도 있으며 철학적세계관에서는 유물론이면서도 사회정치적견해에서는 반동적인것들도 적지 않은 것이다...

다음으로 우리 나라 철학사발전에서 중요특징의 하나는 무신론사상이 비교적 현저하게 발전한 것이다...

이상과 같은 특징들은 우리 나라 력사발전의 특수성과 민족적 생활의 특성으로부터 오는 합법칙적인 현상이다..."⁴⁾

위의 귀절을 볼 때, 북한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역사해석 척도는 '唯物論的 觀點'⁵⁾ 임을 알 수 있다. 변증법적 요소와 진보적 요소도 물론 중요하나 역사해석 및 평가에서 토대가 되는 잣대는 다름아닌 唯物論的 基準인 것이다. 이는 북한의 정치체제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기초로 출발했다는 데서 기인한다. 唯物史觀의 중요성은 1950년대 말과 1960년대 초에 나타났던 역사학계의 時期區分論爭⁶⁾에 잘 반영되어 있다. 시대구분

4) 최봉익, 1986, 앞의 책, pp.335-340에서 발췌.

5) 북한에서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오로지 물질 뿐이고 의식은 물질발전의 일정한 단계에서 생겨난다고 보는 입장"을 唯物論的 觀點이라고 정의한다. 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 『철학사전』 (평양, 1985; 서울:힘, 1988), p.507.

6) 주요 論爭에 대해서는 『역사와 현실』, 창간호 (1989)에 실린 송호정 "북한에서의 고·중세사 시기구분" (pp.119-153), 도진순의 "북한 역사학계에서 근·현대사 시기구분 논쟁과 그 변화" (pp.154-180)와 이윤상, "근현대사의 시대구분," 안병우·도진순 편, 『북한의 한국사인식』(Ⅱ) (서울:한길사, 1990), pp.11-57을 참조. 또한 양태진, "북한 사학계의 연구성향분석: 특히 1960년대를 전후하여," 『북한학보』, 제 7집(1983), pp.113-148 및 이병천 및, 『북한학계의 한국근대사논쟁』(서울:창작과 비평사, 1989)의 해설과 제 I 부 시대구분논쟁 부분을 참조.

문제는 유물사관의 입장에서는 생명과도 같은 것이다. 더욱이 역사학과 정치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북한사회에서는 사회주의 혁명의 필연성을 正當化하기 위해서도 시대구분의 정립이 절박한 과제였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북한의 역사관을 보려면 주체사상 등장 이후부터는 主體史觀에 비중을 두면서 보아야겠지만 주체사관의 토대를 이루는 유물론적 시각을 소홀히 하고는 북한의 역사에 대한 입장과 사상강화의 특성을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취지에서 본 연구에서는 唯物論의 觀點이 북한 역사관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를 보고자 한다.

그런데 북한 歷史觀에 나타난 唯物論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단순히 유물론 계보 및 주요인물의 사상에만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도 북한 역사관의 變遷段階와 그 變化要因을 살피는 작업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지배의 정당성을 선전하는 데 유력한 도구가 될 수 있는 歷史學은 단순한 학문의 기능을 넘어 항상 정치권력과 일정한 관계를 유지하기 마련인데, 북한의 경우가 이의 전형적 모델이기 때문이다. 즉 “歷史란 過去를 대상으로 하는 정치”라고 보는 입장⁷⁾이 더욱 철저하게 관철되면서 역사는 북한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꾸준히 動員되어 왔다. 특히 사회주의 혁명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대중을 동원하는 데 유력한 도구가 될 수 있는 역사학의 역할에 대한 기대는 매우 컸다.

결국 북한에서의 ‘歷史’는 당과 국가의 이데올로기에 있어서 그 중심적 위치의 하나를 차지하게 된다. 이에 역사연구는 당의 정책 및 정치세력의 변화와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正統性을 확보하는 데 주력해 왔다. 역사평가 기준도 당의 현실적 목표와 관련한 이데올로기적 차원에

7) 소련 마르크스주의 역사학파의 대표였던 포크로프스키(Mikhail N. Pokrovsky)의 말. 李基東, “북한에서의 韓國古代史 연구의 성과와 문제점,” 강인구·이성미 외, 『北韓의 韓國學 研究成果 分析(역사·예술판)』(서울: 정신문화연구원, 1991), p.107에서 재인용.

서 제시되고, 정치상황에 따라 평가해석의 기준도 달라져 왔다. 따라서 북한의 역사학은 실천을 위한 연구가 되지 않을 수 없었으며, 현재로 모든 것이 수렴되는 現在中心의인 특성을 강하게 지니게 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북한에서의 '역사'란 매우 의도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體制의 安定에 최대한 봉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현재의 정통성 확립을 위해 사회적 기억인 역사를 國有化하려는 목표아래 역사학계가 집단적으로 동원되어 왔다. 이같은 사실은 북한에서의 역사연구 상황 내지 연구조건을 살펴볼 때 확연히 드러난다. 북한에서는 역사연구가 개인의 자유로운 주제 선택에 의해 개인 단독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대신 김일성의 敎示에 따라 부여된 과제를 집단적으로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요컨대, "현재를 지배하는 자가 과거를 지배하며, 과거를 장악하고 있는 자는 미래까지도 지배하게 된다"는 조지 오웰의 말이 바로 북한 '역사'의 존재형태와 존립목적을 단적으로 표현해 준다.

따라서 이 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북한 역사관의 변천과정을 추적하는 하는 것이고 다른 부분은 유물론적 시각에서 보는 북한의 역사해석에 대한 고찰이다. 북한의 역사학이 정치권력과 밀착되어 있다는 지적에 그치지 않고, 북한사회주의 건설과정에서 歷史學에 어떤 요구를 했으며 그 결과 북한 '歷史'는 어떻게 변했는지를 살피는 데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

II. 歷史觀의 變遷段階와 變化要因

1. 역사관 변화의 政治的 背景

북한의 '역사'를 평가할 때 그 평가기준이 시간적으로 조금씩 변해 왔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유물사관을 기준으로 '역사'를 해석하던 입장이 주체사상이 확립된 이후로는 이를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역사'인식의 기준은 시기에 따라 변화해 왔고 그 변화과정은 북

한 역사학의 변화를 의미했다. 그렇지만 북한의 체제 특성상 이는 단순한 학문적 시각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북한 政治社會의 變化와 그 체를 같이 하고 있다. 따라서 역사평가기준의 변화과정을 추적하는 일은 북한 역사학계의 변화를 보는 것을 넘어 북한의 정치사회적 변화를 추적하는 의미를 지니게 된다.

북한의 역사학은 몇 단계의 政治的 變化過程을 거치면서 정립되어 왔다.⁸⁾ 처음의 시기는 북한체제의 수립에서부터 시작하여 그의 체제적 위기가 오는 1953년까지의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이 시기는 해방 전의 유명한 역사가들이 대량 월북하여 활동을 개시함으로써 북한 역사학의 연구역량이 남한보다 상대적으로 나은 시기이다.⁹⁾ 그러나 이들이 모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아니었다. 이 시기는 남로당계, 연안파, 소련파, 친김일성계 등의 입장이 혼재된 시기였기에 이들의 입장을 끌고루 반영하는 역사학이 가능했다고 본다.

따라서 이 시기의 역사서술은 아직 김일성의 절대권력이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서 多樣的 立場을 대변할 수밖에 없었다.¹⁰⁾ 이것이 그 후에 宗

8) 북한 역사학의 變化段階를 구분할 때, 남한에서는 대체적으로 해방 이후부터 한국 전쟁까지를 북한 역사연구 기초축성기, 1960년대 중반까지를 역사연구 체제적 정립기, 1960년대 후반부터는 역사연구 전면적 완성기로 나누고 있다. 金炫榮, “『북한의 朝鮮後期社會 認識』에 대한 논평,” 강인구·이성미 외, 앞의 책, p.406.

9) 李光麟, “北韓의 歷史學,” 『동아연구』, 제16집 (1988, 12), pp.47-63; 임영태, “북으로 간 맑스주의 역사학자와 사회경제학자들,” 『역사비평』, 제간6호 (1989 가을), pp.300-337; 韓永愚, “북한의 역사학,” 『韓國의 文化傳統』 (서울: 을유문화사, 1988), pp.263-281 참조.

10) 이 시기에 출간된 조선역사편찬위원회의 『조선민족해방투쟁사』(1949)는 외래자본주의가 침략하기 직전의 19세기 후반부터 해방 직후까지를 다루고 있는데 필자는 백남운, 박시형, 유문화, 김승화, 김광진, 김경인, 김두용, 최창익, 사브시나 등으로 그 출신성분이 다양하다. 특히 해방 이후를 소련인 사브시나가 쓰고 있고 1920년대 민족해방운동사를 연안파의 최고 이론가인 최창익이 쓰고 있는 사실이 이 때의 분위기를 잘 말해준다. 權熙英, “북한에서의 한국근대사 인식의 문제,” 강인구·이성미 외, 1991, 앞의 책, p.215; 도진순, “1920년대 민족해방운동사 인식의 추이와 쟁점,” 안병우·도진순 편, 『북한의 한국사인식』(II) (서울: 한길사, 1990), pp.210-212.

派主義 명분으로 비판을 받게 되는 소지가 된다.¹¹⁾

한편 이 시기는 이러한 국내적인 배경 외에 국제공산주의에 있어서 스탈린주의적 역사해석이 지배하던 시기였다는 對外的인 요소의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그러므로 북한으로서는 유일한 과학적 역사관인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방법론을 내세운 스탈린주의적 역사해석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으며, 이 시기는 소위 '주체'라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 결과 김일성 개인에 관해서는 별로 왜곡이 없었던 시기라고 볼 수 있다.

다음 단계는 한국전쟁 처리과정에서 새로운 유형의 사회건설을 모색하던 시기이다.

소련에서의 스탈린의 죽음과 1956년의 소련 공산당 제20차 전당대회는 북한 국내의 權力力學關係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스탈린주의의 보편타당성이 흔들리게 된 외부적 요인은 그 권위에 입각하여 통치해 온 김일성의 정통성에 큰 타격을 가하게 되자, 상대적으로 권력의 핵심에서 벗어나 있던 사람들이 김일성 통치권에 대해 정면도전을 시도하게 된다. 최창익, 박창옥, 윤공흠 등의 김일성 체제에 대한 의문 제기가 그 대표적 사건이다. 그러나 이 도전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우선 이 도전자들 자체가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黨內鬭爭水準을 넘어서지 못했다.¹²⁾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김일성은 '주체'라는 다분히 民族主義의인 가치를 내세우고 그 감정에 호소함으로써 체제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노력하게 된다. 스탈린식 국제주의가 붕괴되는 시점에서 민족주의에로의 방향

11) 이 책은 사상단체의 평가, 항일무장투쟁과 독립동맹 평가, 조선공산당의 역사적 역할에 대한 평가, 분파주의의 평가를 대상으로 혹독한 批判을 받는다. 당이 정치사업에 힘쓰는 동안 당내의 종파분자들이 끼친 사상적 해독의 결과라는 명분이다. 정용옥, "남북한 역사학계의 민족해방운동사 인식의 특징," 정용옥·도진순 외, 『남북한 역사인식 비교강의』 (서울: 일송정, 1989), p.26.

12) 權熙英, 1991, 앞의 글, pp.216-217.

전환은 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이었다. 그 이유는 그것이 소위 민주화의 문제를 회피할 수 있는, 그리고 내부의 結束을 다질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¹³⁾

‘주체’라는 민족주의적 요소에 대한 강조는 한국전쟁 종결과정에서 시작된 1953년 8월의 노동당 간부 숙청과 1955년 12월 15일 박헌영 사형 언도 이후, 1955년 12월 28일, ‘당선전선동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인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데 대하여”에 처음으로 명백히 드러난다. 주요 내용은 한마디로 “조선혁명의 이익”¹⁴⁾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진행된 일련의 과정이 김일성 개인 우상화작업과 깊은 연관성을 갖는다고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

김일성 個人崇拜作業은 그 후 일어난 사건과 직접관련이 있다고 본다. 특히 노동당 제3차대회(1956)와 노동당 제4차대회(1961) 사이가 김일성 권력강화와 밀접한 연관이 되는 시기이다. 이 시기는 조선노동당 내의 危機가 고조되던 시기이다. 스탈린 격하운동을 시도한 소련에서의 제20차 당대회의 영향은 북한 김일성에게 매우 심각하게 미쳤다. 제20차 당대회는 사회주의 문제를 개인숭배의 비판이라는 차원으로 전개하였는데 그 여파로 북한에서는 ‘개혁파’들에 의해 집단적 지도체제를 수립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1956년 8월 전원회의에서의 위기는 그 상황을 잘 설명해 준다. 그러나 윤공흠 등의 망명과 박창욱, 최창익에 대한 직책박탈은 노동당 지도부의 개혁이 실패로 끝났음을 알려주면서, 그 결과 거의 모든 派閥이 잇달아 肅清되어 김일성 ‘제2의 奪權’은 성취되게 된다. 다시 말해 김일성의 권력은 본격적으로 자주적 강화의 길을 걷게 된다.

이런 정치적 맥락에서 볼 때, 이 시기 북한역사학계의 과제는 한마디로 스탈린주의 克服이라 할 수 있다. 민족주의 요소를 적극 평가하면서

13) 權熙英, 앞의 글, p.218.

14) 『김일성 저작집』, 제9권(1954. 7-1955. 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pp. 467-495.

체제의 위기를 극복해 나감과 동시에, 소련의 스탈린 대신에 朝鮮의 金日成을 새로이 구축된 위치에 모시는 것이 주 임무였다. 즉, 정통성 확립을 위한 또한번의 歷史變容을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에 북한에서는 민족문화유산의 우수성과 항일무장투쟁의 혁명전통을 강조하는 연구가 적극 진행되어, 1950년대 말부터 60년대 중반의 북한의 주요한 연구성과로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김일성은 이제 서서히 민족의 영웅이 되기 시작하면서, 1935년 5월의 '조국광복회' 창립과 항일빨찌산의 역할을 강조하기 시작한다.¹⁵⁾

전반적으로 보아 이 시기는 김일성이 위기수습의 한 방편으로 '民族主義'¹⁶⁾에 호소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개혁파들이 국제적 조류를 수용하려는 것과 대조를 이룬다.

다음은 1960년대 후반기 이후의 시기로 설정할 수 있다. 이 시기는 사상무장을 새롭게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면서 시작된다. 소련과의 대립에서 초래한 체제상의 위기는 1964년 이후 소련이

15) 『조선노동당 역사교재』가 바로 이러한 혁명전통 강조와 관련하여 저술된 것이다. 이는 1958~1964년에 완성된 것으로 김일성의 지도노선 및 혁명전통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천명한 것이다.

16) 북한에서는 원래 民族과 民族運動, 民族問題와 民族主義를 철저히 분리해서 사용해 왔다. 민족과 민족운동, 그리고 민족문제 등은 그 가치를 긍정하고 있는데 반해 民族主義에 대해서는 “계급적 이익을 전민족적 이익으로 가장하는 부르조아의 사상”이라고 하며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해 왔다. 대신 애국주의 특히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라는 용어를 써왔다. 그런데 최근 사회주의권의 붕괴에 즈음하여 북한에서는 ‘부르조아 민족주의’와 ‘참다운 민족주의’를 구분하려는 시도를 함으로써 한계를 드러낸 사회주의라는 말 대신에 民族主義를 앞세우고 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의 민족주의는 사회주의의 대용물이라고 볼 수 있다. 민족주의자로 스스로 변신함으로써 국제적인 위기로부터 초래하는 이념적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아울러 민족의 통일문제에서 보다 유리한 입지를 선점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태도라고 해석된다. “... 나는 공산주의자인 동시에 민족주의자이고 국제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라고 한 김일성 연설,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자」에 이러한 입장이 잘 나타나고 있다. 『로동신문』, 1991년 8월 5일 참조.

다시 보수노선으로 회귀함에 따라 김일성의 위치는 더욱 강화되지만,¹⁷⁾ 문제는 中國의 狀況이었다. 바야흐로 중국 전역에서 文化大革命(1966-1976)이 시작된 것이다.

북한으로서는 이와 같은 국제적 정세에 적극대처하기 위해 보수노선의 관철을 통해 체제내부의 結束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에 1968년 3월 14일 復古主義 경향의 오류를 지적하는 김일성의 연설¹⁸⁾이 발표되면서 민족문화유산에 대한 전면적 再評價 작업이 시작된다.

북고주의 경향에 대한 비판은 제5차 당대회(1970. 11)의 보고¹⁹⁾에도 지적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지금까지의 민족주의 요소보다는 그 동안 黨史를 중심으로 발전해 온 김일성 唯一思想을 強化하는 작업이 진행되기 시작한다. 이후 1970년대는 이 작업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그 이전까지 발간되던 역사학 잡지의 발간이 중지되거나 뜸해지는 현상까지 나타나게 된다.²⁰⁾

17) 김일성의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로의 과도기와 프롤레타리아트독재문제에 관하여」(1967)가 그의 입장을 잘 대변해 준다. 이미 보수화된 신흥관료집단의 이익을 옹호해 주는 김일성의 입장이 이 글에 잘 나타나고 있다.

18) '교육부문일군들앞에서 한 연설'인 「학생들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참된 후비대로 교육교양하자」에는 민족유산평가에 광범위한 비판이 주를 이룬다. 즉 지난날의 역사책을 다시 써야 한다, 실학파의 이론을 지나치게 높게 평가해 왔다, 이순신 장군을 비롯한 인물 평가도 비판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불교·유교·예수교와 같은 종교문화의 올바른 평가가 필요하다는 등의 지적이 그 실례이다. 김일성, 「사회과학의 임무에 대하여」(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9), pp.497-527.

19) 국토통일원, 「朝鮮勞動黨大會 資料集」, 제Ⅲ집 (서울: 국토통일원, 1988), pp.25-31.

20) 1955년에 1월 창간되어 월1회(1955년동안) 또는 2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간행되던 「력사과학」이 1968년부터 1976년까지는 총 여섯번 밖에 간행되지 못하고 있다. 그 후 1977년부터 간행된 잡지는 그 전의 질에 비해 주체사상 및 김일성 숭배를 선전하는 선전책자로 전락한 느낌을 주고 있다. 이는 갑작스런 역사재평가 작업에 대한 역사학자들의 부담을 암시함과 동시에 새롭게 제시된 국책과제수행을 위해 집단작업에 연구인력이 집중된 결과가 아닌가 한다. 李光顯, 1988, 앞의 글, pp.42-44; 崔珍玉, 「북한의 朝鮮後期 研究成果 分析」, 강인구·이성미 외, 1991, 앞의 책, pp.185-188; 한영우, 1988, 앞의 책, p.277.

이 과정을 정리해보면, 한마디로 '주체'가 통치의 대의명분으로 등장하게 된 중요한 원인은 스탈린의 사망 이후 나타난 체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 있었다. 그 과정에서 민족주의적 요소가 높이 평가되다가 주체사상의 확립과 더불어 민족주의와 김일성 유일사상이 결합한 이른바 '주체사관'이 형성된 것이다. 결국 정치적 상황변화에 따른 정치체제의 명분정립과정에서 북한의 '歷史'는 다시 한번 변화될 수밖에 없었다.

2. 역사관의 變遷過程

이상의 정치적 배경의 영향으로 역사관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해 왔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1) 唯物史觀 依存期

제1기라고 할 수 있는 해방 후부터 1950년대 중반까지는 사회주의적 역사연구를 시작한 초기로서, 소련의 영향으로 인해 唯物史觀의 역사법칙에 의해 우리 역사를 연구하던 시기라고 볼 수 있다. "해방 후 력사학도들은 '쏘련을 향하여 배우라'는 당의 호소를 받들고 맑스-레닌주의 고전들의 학습과 함께 소련 력사학계가 달성한 성과들을 열심히 학습했다"²¹⁾는 회고에 나타나듯이 소련에 대한 의존도는 대단했다.

그러나 전쟁을 치르는 동안 전쟁수행이라는 명분 속에 민족문화와 전통의 계승·발전이 크게 강조되면서 소련 의존적인 태도는 다소 약화되기 시작한다. 이런 변화는 전쟁 중에 벌인 사상사업의 강화지침에 잘 나타나고 있는데, 마르크스-레닌주의를 혁명의 구체적 실천과 결부시켜 연구하는 창조적 적용의 모색을 강조하고, 사상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유산의 비판적인 계승·발전을 강조하는 것이 주 내용이었다. 물론 사상사업의 기본은 근로자들을 마르크스-레닌주의적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는

21) 「8.15 해방후 조선 력사학계가 걸어온 길」, 『력사과학』, 1960년 제6호; 안병우, "민족문화유산의 평가의 기준과 내용," 안병우·도진순 편, 『북한의 한국사인식』 (I) (서울: 한길사, 1990), p.406에서 재인용; 이윤상, 1990, 앞의 글, pp.13-14.

것이었으나,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대하는 자세는 이전과 점차 달라지고 있었다.

예컨대, “우리의 사상사업에는 선조들이 이루어놓은 고귀한 문화유산들을 맑스-레닌주의적 견지에서 계승발전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그 유산을 집어던지려는 현상이 아직 부분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민족의 고귀한 문화유산을 계승발전시키는 기초 위에서만 다른 나라의 선진 문화들을 옹계 섭취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²²⁾ 한다는 지적은 당시까지 만연하고 있던 민족문화유산 무시경향에 대한 반성과 경고였다.²³⁾

이 시기의 역사관계서술은 1955년에 간행된 최익한²⁴⁾의 『실학파와 정

22) 1952년 12월 15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서 한 보고’인 “당의 조직적 사상적 강화는 우리 승리의 기초”의 일부분. 『원자료로 본 북한』(1989년 1월호, 『신동아』부록), p.104.

23) 안병우, 1990, 앞의 글, p.407.

24) 崔益翰은 1897년 울진군의 유학가문에서 태어나 일본 식민지 시대와 해방 초기에 사회주의 운동가로서 활동한 바 있으며 국학 연구분야에서도 많은 업적을 남기기도 했다. 해방 후 장안파의 핵심으로 활동을 하였으나 통일전선형성문제를 놓고 박헌영 일파와 견해를 달리했기 때문에 1948년 월북하여 최고인민회의 제1기 대의원을 지낸 바 있다. 월북 이후에는 정치적으로 뚜렷한 활동을 보이지 않고, 주로 연구에 치중한 것 같다. 그는 김일성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력사제문제」 6호(1949)에 “3.1운동의 역사적 의의에 대한 제고찰”을, 18호(1950)에 “조선문학과 한문학” 등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런 연구활동 속에서 『실학파와 정다산』을 쓴 것으로 보인다. 그는 1953년 김일성 종합대학의 특강주제인 “정다산의 이상사회와 그 역사적 제약성”을 이 책의 부록으로 실고 있는데, 여기서 정다산을 進歩的唯物論者로 평가하는 입장은 물론 그의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대한 관심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앞서 소개한 『조선철학사 개요』의 저자 최봉익은 최익한의 아들이다. 이 사실은 1991년 7월 중국 길림성 연길에서 개최된 “KOREA학 소장학자 국제학술평의회”의 역사분과에 참가한 북한학자인 조선사회과학자협회 중앙위원회 위원 리철용과 주제과학원 철학연구소 연구원 김영복 및 사회과학원 민족고전연구소 연구사 김세민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었으며, 독일 뉘른베르그대 조선어문학 강좌장인 헬가 피트(Helga Picht)교수로부터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헬가 피트는 최창익과 최익한이 6촌간이라는 것을 말한 바 있으나 북한학자들로부터는 확인할 수 없었다.

다산』을 먼저 꼽을 수 있다.

이 책은 전쟁 종결과정에서 思想的 強化를 표방하는 분위기 속에서 나오게 된다. 1952년 12월 15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서 김일성은 「당의 조직적 사상적 강화는 우리 승리의 기초」라는 보고를 통하여 “우리 선조들이 써놓은 력사나 지리나 기타 군사, 정치, 경제, 문화 분야의 고귀한 유산들을 마르크스-레닌주의적 견지에서 분석하고 그것을 섭취하여 발전시켜야 할 것을 강조하고, 동시에 일부 자각없는 문화인들이 “그 고귀한 유산들을 집어치우는 아주 용서 못할 엄중한 결함”을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우리는 자기의 고귀한 과학, 문화의 유산을 옮겨 섭취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함을 강조하고 있는데,²⁵⁾ 이런 분위기 속에서 최익한은 월북한지 만 7년만에 “우리 민족의 문화적·사상적 력사를 과학적으로 리해하기 위하여” 조선 실학파의 대표자인 정다산의 사상 및 학설을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의거하여 펴내고 있다.

월북하기 전에 1938년 12월 9일부터 1939년 6월 4일까지 『동아일보』에 “여유당전서를 讀함”이라는 제목으로 65회에 걸쳐 게재한 것을 토대로 그가 그 동안 높이 평가해 왔던 정약봉에 대해 체계적인 정리를 한 것이다. 여기서 최익한은 정다산을 唯物論에 입각해 평가하고 있다. “유학개혁사상을 주장한 다산은 인식과 비판에 있어서 유물론적 요소를 지녔고 특히 정치·경제사상은 련전제라는 민주주의적 토지분배를 주장함으로써 혁명적 성격을 지녔다”²⁶⁾고 평가하고 있다.

단지 “시대를 선도하는 사상임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사회의 낙후

崔晶益의 정치적 부침과 관련한 최익한의 말년생활 및 역사학계에서 차지하는 최봉익의 위치 등과 관련하여 이 사실은 앞으로 규명해야 할 관제라고 본다. 왜냐하면 북한사회에서의 親屬戚 關係란 남한 사회에서의 그것과는 달리 성분을 결정짓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 왔기 때문이다.

25) 崔益翰, 『실학파와 정다산』 (서울: 청년사, 1989), p.9.

26) 앞의 책, pp.394-402.

성과 역사적 제약성, 그리고 주관적으로 사상적 미숙성과 계급적 제한성에 의해 앞으로 다가올 부르조아 사회를 사상화하지 못한 것이 한계”²⁷⁾라고 덧붙이고 있으나, 이는 그 시대의 정다산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전연 예견하지 못한 것은 누구도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변호하고 있다.

이러한 최익한의 견해는 북한의 입장으로서는 唯物論에 입각하여 實學思想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최초의 성과로서 이후 북한 연구업적에 그의 견해가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²⁸⁾

한편 이 시기의 역사관은 1956년에 간행된 『조선통사』(상)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이 책은 사회과학원이 설립된 지 4년만에 역사연구소에서 출간하고 있는데 임건상, 김득중, 김석형, 박시형, 전석담 등이 분담 집필로 편찬된 책으로서 唯物史觀에 의해서 씌어진 최초의 통사이다. 또한 반종파투쟁에서 교조주의자·형식주의자로 몰려 제거된 최창익 등이 역사학계를 주도하면서 편찬한 책이다. 따라서 1955, 56년의 반종파투쟁 이전의 역사관을 반영하고 있다. 이 책의 특징은 문화발전의 요인으로 外國의 영향을 들고 있는 점이다. 구라파, 중국, 소련 등의 영향을 내세우면서 문화의 형성과 발전과정에서 외래문화의 영향을 중시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²⁹⁾ 이는 전쟁 중에 애국주의를 고취하기 위한 사상교양의 방편의 하나로 민족문화유산에 대한 적극적인 평가가 강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종파투쟁을 거치기 전까지는 그런 분위기가 전면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27) 앞의 책 p.374, pp.400-401.

28) 『조선철학사』(1960), 『조선통사』(1962), 『다산 정약용 탄생 200주년 기념 논문집』(1962)에 崔益翰의 실험학과에 대한 견해가 그대로 수용되고 있다. 主體史觀이 강조되던 시기에 발간된 정성철의 『실험학과의 철학사상과 사회정치적 견해』(1974)에서도 崔益翰이 분석한 실험학과의 현실인식과 업적이 그대로 인정되면서 실리고 있다. 이 책에는 심지어 최익한이 잘못 파악한 실험사상가의 생존연대까지도 그대로 수정되지 않은 채 실리고 있다.

29) 그 실례는 안병우, 1990, 앞의 글, pp.407-409 참조.

(2) 民族史觀 強調期

제2기라 할 수 있는 1950년대 중반 이후는 '主體'를 내세우면서 항일무장투쟁의 혁명전통과 민족문화유산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크게 고양된 시기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8월 종파사건 이후 權力構造의 再編³⁰⁾은 역사학계에도 영향을 미쳐 그 때까지 북한의 역사학계를 지도하는 위치에 있었던 최창익, 박창옥과 리창원 등이 교조주의자로 비판 肅清된다. 한마디로 '반종파투쟁'³¹⁾은 사상투쟁을 동반하게 되어 교조주의,³²⁾ 형식주의, 사대주의, 수정주의에 대한 비판의 형태로 행해졌으며 그 이론적 기반은 '주체'의 확립이었다. 교조주의에 대한 비판과 그에 대한 이론적 근거와 대안으로서 '주체'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민족의 역사와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더욱 촉구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이제 "소련을 향하여 배우라"는 구호 대신에 "조선을 연구하라"는 구호가 지배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었다.³³⁾

이 시기에는 1960년 4월에 『조선철학사』(상), 1962년에 『조선통사』 개정판과 『다산 정약용 탄생 200주년 기념논문집』, 1963년에는 『조선문화

30) 이종석, "김일성의 '반종파투쟁'과 북한권력구조의 형성," 『역사비평』, 제간 6호(1989 가을), pp.256-263; 도진순, "북한의 종파문제와 1920년대 민족해방 투쟁에 대한 인식," 『역사비평』, 제간 6호(1989 가을), pp.272-279 및 "50년대 '반종파투쟁'과 '주체확립'," 『오늘의 북한』(『월간중앙』 1989년 신년호 부록, pp.124-129) 참조.

31) 북한에서는 反宗派鬭爭을 "혁명과 당사업에서 가장 기본적인 과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32) '교조주의'란 "자기가 처한 구체적 현실과 조건을 타산하지 않고 일반명제를 그대로 적용하거나 남의 것을 기계적으로 옮겨다 놓는 태도"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이는 "남만 쳐다보고 또한 남의 것이라면 다 좋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나라를 맹목적으로 숭배하는 사대주의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다. 『철학사전』(1985년판), pp.68-69.

33) 안병우, 1990, 앞의 글, p.410.

사』가 발간되었는데, 여기서는 외래문화의 영향같은 것은 완전히 사라지고 우리 문화의 발전을 내부의 발전논리에 입각하여 自主인 발전과정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렇다고 민족문화유산에 대한 전면적 연구와 주장이 모든 민족문화유산에 대한 계승을 의미하는 것은 물론 아니었다.³⁴⁾ 이 시기에 ‘주체’가 강조되면서 교조주의, 민족허무주의, 사대주의가 비판받은 것이고 그러한 ‘左偏向’에 대한 반발과 사상논리적 근거의 마련이라는 현실적 요청 때문에 민족문화유산이나 우리 역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것이지 결코 계급적 입장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黨性·勞動階級性·人民性은 여전히 사회주의 문화건설의 기준으로 되고 있었고 계급적 입장은 기본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다. 단지 애국주의적, 민족자주적 입장이 크게 강조되면서 상대적으로 그것이 전면에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다.

(3) 主體史觀 形成期

제3기는 1960년대 후반 主體史觀의 등장과 관련된다. 교조주의, 민족허무주의의 극복을 당면의 과제로 삼은 50년대 중반 이후의 역사관은 60년대 후반 주체사상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면서 또한 차례의 변화를 겪게 된다. 즉, 주체사관의 형성과정에서 민족문화유산의 계승과 발전에 관한 기준이 ‘左’로 조금 이동하면서, 복고주의적 경향이 비판받고, 黨性, 勞動階級性, 歷史主義,³⁵⁾ 社會主義的 愛國主義가 민족문화유산의 평가기준으로 확정된다.

복고주의와 같은 ‘우편향’에 대한 비판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1968년

34) 민족문화의 유산을 계승하는 문제에서도 朴昌玉류의 민족허무주의, 이로부터 흘러나오는 교조주의와 사대주의, 그리고 金科壽류의 민족배타주의, 이로부터 파생되는 민족주의, 복고주의가 비판적 계승의 기준이었다. 정용욱, 1989, 앞의 글, p.36.

35) 북한에서는 ‘역사주의’를 “사회현상들을 그 발생·발전의 구체적 조건들과의 연관에서 고찰하는 원칙”이라고 정의한다. 『철학사전』, 1988, 앞의 책, pp.454-455.

3월 14일 김일성의 연설에 집약되어 있는데, 이는 1970년에 4가지 지침³⁶⁾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이러한 복고주의에 대한 비판은 1970년 11월의 5차 당대회의 보고에도 지적되고 있다.

특히, 1972년 ‘사회과학의 임무’를 규정한 보고³⁷⁾에서는 “력사과학이 계급교양과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교양의 강화수단이며 사회과학 연구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기 위해서는 사대주의·교조주의·복고주의에 대하여 싸워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과학자들이 먼저 유일사상으로 무장하여 자신을 혁명화·노동계급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主體思想’을 역사평가의 유일하고 정당한 강령적 지침으로 확립하고 있다. 그 결과 같은 해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혁명사상에 의한 민족문화유산 연구』가 간행되었는데, 이 책에서는 과거 유산에 대한 ‘비판적 계승·발전’이란 입장이 명확히 표현되고 있다.

‘비판적 계승·발전’이란 오직 조선혁명과 인민의 이익에 맞고 조선인민이 좋아하는 것만을 계승·발전시키는 입장으로서는, 구체적으로 당성·노동계급성·역사주의 원칙하에서 이루지는 것을 뜻하며, 그 원칙은 복고주의와 허무주의 비판을 통해 관철되는 것을 말한다. 한마디로 진보적·인민적인 것은 비판적으로 계승·발전시키고, 뒤떨어지고 반동적인 것은 버린다는 것이다.³⁸⁾ 그리고 진보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지배계급내에서 제기한 體制內的인 개혁안은 많은 시대적 제약을 가지고 있으며 본질적으로 노동계급이 지향하는 문화와는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계승·발전

36) 4가지 지침이란 “민족허무주의적 태도는 주체사상과 다르며, 계급적 입장에서 진보적이고 인민적인 것을 비판적으로 계승해야 하며, 복고주의 경향에 반대하고, 혁명의 이익에 맞게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병우, 1990, 앞의 글, pp.415에서 재인용.

37)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철저히 옹호하고 널리 해석 선전하기 위한 사회과학의 임무에 대하여」,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자료집』, 제8집; 안병우, 1990, 앞의 글, p.415에서 재인용.

38) 앞의 글, p.416.

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확립된 평가기준에 따라 『조선통사』와 『조선문화사』가 1977년에 개간되었고, 33권의 방대한 『조선전사』가 간행된다. 이 책들에서 ‘역사의 임무와 역할’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바, 새로운 사회주의적 문화의 성과적 건설과 근로자들의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에 기초한 애국심 고양에 힘써 근로자들과 후대들을 혁명화·노동계급화하는 데 ‘복무’하는 것이 그것이다.

그 결과 제2기의 역사평가기준은 수정되어 實學遺產³⁹⁾과 옛 명장⁴⁰⁾들에 대한 再評價가 강조되고 철학, 문학, 음악, 무용, 미술, 과학기술, 언어, 옛날 책, 유적 유물, 풍속유산 등 모든 과거의 것들이 모두 다시 평가되었다.

(4) 主體史觀 修正期

제4기는 80년대 이후 현재까지의 시기로 볼 수 있다. 이 시기는 북한의 표현을 빌면, “은 사회에 주체사상이 확 들어찼다”고 선언하면서⁴¹⁾ 김정일에 의해 주체사상이 내부적으로 ‘김일성주의’로 달리 불려지기 시작하는 시기이다.

즉, 1960년대 후반 이후 계속된 사상혁명의 결과 主體思想이 유일사상으로 자리잡게 되고, 그 동안의 과제로 제시되었던 사대주의, 교조주의, 민족허무주의는 모두 청산되어 온 사회에 주체사상이 충만하게 된 시기이다. 이러한 주장은 사상사업이 다른 단계에 이르렀음을 의미하게 되는데,

39) 실학과 관련된 교시는 제Ⅲ절의 ‘實學派와 유물론’을 다룰 때 자세히 검토한다.

40)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관점에서 옛 명장이나 그 행적을 평가할 때는 애국주의의 계급적 기초가 본질적인 문제가 된다. 여기서 ‘부르조아 명장’과 참다운 ‘애국명장’이 나뉘어진다. 이 기준에 따르면, 왕건, 이성계, 김부식 등은 전자에 속하고 온달은 후자에 속한다. 한편 이순신 장군도 용감히 싸운 행동은 애국심의 발로로 높이 평가해야 하지만, 궁극적으로 인민을 위해 싸운 것이 아니므로 진정한 애국명장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재평가작업의 주 목적이다.

41) 국토통일원, 『朝鮮勞動黨大會資料集』, 제Ⅳ집(1988), pp.35-36.

그에 따라 '역사'인식에도 약간의 변화가 발생하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유물사관에서와 마찬가지로 主體史觀에서도 피지배계급인 근로인민대중을 역사발전의 동인으로 본다. 그러나 실제역사에서 인민대중이 역사의 전시기를 통하여 항상 주체적으로 또 자주적으로 활동했는가 하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생긴다. 북한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自主的인 主體'의 개념을 설정하고 있다. 즉 인민대중이 역사의 주체이기는 하지만 항상 자기의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역사의 자주적인 주체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는 선진적 노동계급이 출현하고 그들의 자주적인 혁명사상에 의하여 근로인민대중이 의식화되고 조직화 됨으로써 비로소 역사무대에 널리 등장할 수 있게 되었다"⁴²⁾는 것이다.

이는 주체사관의 修正을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인민대중을 막연히 통시대적인 역사의 주체로 규정할 때 발생하는 곤란한 점을 해소하려는 노력으로 보인다. 이 시기의 역사관의 부분적 변화는 주체사상의 首領論과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즉 계급주의 관점을 과도하게 부각시키는 경우, 현재 수령의 영도하에 수행하는 인민대중의 역할과 수령이 존재하지 않았던 근대 이전 역사에서의 인민대중 역할과의 차별성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난점이 발생하게 된다. 곧 '수령'의 역할이 부각되지 못하는 난점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를 해결할 현실적 필요에서 '수령에 의해 영도되는 인민대중'과 '노동계급 성장 이전의 인민대중'을 구분하기 위해 '자주적인 주체' 개념이 제시된 것으로 본다.

결국, 노동계급 성장이전의 인민대중은 역사에서의 자주적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뜻이다. 이런 시각은 아울러 역사발전과정에서 인민대중 이외의 다른 계층의 역할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으로

42) 1986년 7월 15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인 김정일의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의 한 귀절.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편, 1991, 앞의 책, p.320.

해석된다. 1987년판 『조선통사』를 볼 때, 계급적 관점을 緩和시켜 기술한 부분이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고 있고,⁴³⁾ 外來文化에 대한 자세가 과거와 같이 경직되지 않는 데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북한에서의 ‘역사’해석작업은 黨의 思想事業의 일환이며, 사회주의적 민족문화 건설에 ‘복무’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따라서 역사해석의 기준은 그러한 목적과 기능에 따라 결정되며, 정치정세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요컨대, 政治的 正統性 확립을 위해 社會的 記憶인 ‘歷史’는 조작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결과 ‘역사’인식의 변천 과정 속에서 역사서술성향은 다분히 二分法的 태도를 지향하고 있다.

일단, 해당사상이 唯物論的인가 觀念論的인가를 구별하고 관념론적이려면 그것이 객관적이든지 주관적이든지⁴⁴⁾ 비과학적인 세계관으로 비판하고 유물론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唯物論的인 觀點을 취하고 있다. 또한 사물현상을 변화, 발전하는 것으로 인정하는가 아니면 운동을 부정하는가를 기준으로 辨證法的 세계관과 形而上學的 세계관을 구별하여 변증법적인 요소가 있는 사상을 긍정적이고 진보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고양시키는 사상인가 아닌가를 기준으로 판별하는 主體的인 觀點도 보여 주고 있다.

요약하면, 북한에서 역사인식의 평가기준으로 중요시 하는 것은 첫째, 唯物論的 요소, 둘째, 辨證法的 요소, 셋째,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고양시키는 進步的인 主體的 요소라고 할 수 있다.

43) 안병우, 1990, 앞의 글, pp.418-419.

44) 북한에서는 관념론을 “세계가 사람들의 관념 밖에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부인”하며 “객관적 현실에 대한 인간인식의 가능성을 부인하는 입장”으로 정의한다. 구체적으로 주관관념론과 객관관념론으로 나누어 평가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주관적 의식이 1차적이고 그에 의하여 현실세계의 모든 것이 규정된다고 보는 입장”이 전자이고, “사람들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하는 ‘세계이성’과 같은 것을 존재의 기초로 보면서 물질과 자연은 그것으로부터 생겨난 것으로 보는 입장”이 객관관념론이라는 것이다. 『철학사전』(1985년판), p.64.

III. 唯物論의 歷史解釋의 주요 내용

1. 概要

북한에서는 역사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철학사나 정치사상사 속에 唯物論의 哲學體系가 면면히 이어지고 또 발전해 왔음을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다. 특히 유물론 철학체계가 自體的인 發展을 해온 식의 서술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제 북한에서 역사해석의 평가기준으로 중요시 여기고 있는 唯物論의 觀點이 실제로 사상사 해석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그 흐름과 주요 사상가를 중심으로 보고자 한다. 그렇다고 북한에서 연구된 개개인의 사상내용에 대해 자세히 검토한다거나 남한의 연구업적과 비교하여 비판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럴 능력도 없거니와 이 연구의 초점을 역사관 변화 속의 유물론에 맞추기 위해서 系譜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에 참고한 책은 주로 철학사와 정치사상사를 다룬 『조선철학사』(상), 『조선철학사 개요』, 『조선철학사』(Ⅱ)이다.⁴⁵⁾ 그 외에 주체사관의 입장을 강조하기 위해 씌어져 사관의 변화를 분명히 나타내는 『조선통사』와 『조선전사』를 참고로 하였다. 실학파의 사상을 주로 다룬 『실학파와 정다산』 『실학파의 철학사상과 사회정치적 견해』도 실학파에 대한 관점변화를 보기 위해 참고하였다.

이상의 자료에 나타난 북한판 唯物論의 흐름은 대략 다음과 같다.

古代의 ‘소박한 유물론’으로 출발한 유물론은 삼국시대, 발해·통일신라 시기를 거쳐 고려후기 李奎報에 이르러 유물론 발전의 개화기를 맞이하

45) 정진석·정성철·김창원, 『조선철학사』(상) (평양: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1960 재판은 1961; 서울: 이성과 현실사, 1988); 최봉익, 『조선철학사 개요』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6; 서울: 한마당, 1989) 이 책은 『또 하나의 우리철학사』(청주: 은누리, 1989)로도 간행됨; 정성철, 『조선철학사』(Ⅱ)(리조편) (평양: 과학백과사전 출판사, 1987; 서울: 이성과 현실, 1988).

게 된다. 이는 15세기 조선조 초 金時習의 유물론으로 연결된 후 16세기 徐敬德에 이르러 이전의 유물론과는 다른 氣一元論의 唯物論으로 나타나 독자적인 유물론의 영역을 열게 된다. 그 후 17세기 유물론 철학자인 張維⁴⁶⁾에 이어 任聖周에 이르면 氣一元論의 唯物論이 체계화되어 당시까지의 지배이데올로기였던 주자성리학 중심의 객관관념론을 압도하게 된다. 이런 흐름은 실학사상이 가운데 가장 유물론적인 崔漢綺에 이르러 中世 唯物論의 단계를 지나 近世唯物論으로 이행하게 됨으로써 마침내 유물론의 승리를 구가할 수 있게 된다. 우리 나라 최대의 유물론자인 崔漢綺의 사상은 그 후 개화파와 애국문화운동가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고 이 흐름은 드디어 1926년의 김일성 수령의 '토·노 동맹'으로 연결되어 1930년 카론회의에서 조선혁명의 주체적 노선을 제시함으로써 主體時代의 唯物論이 개화된다는 도식이다. 물론 주체시대의 유물론은 이전의 것과는 전혀 성질이 다르다고 주장한다.

결국 주체시대 이전의 유물론은 고대, 고려 李奎報, 조선시대에서는 金時習(15세기) 徐敬德(16세기), 張維(17세기), 任聖周(18세기), 崔漢綺(19세기)를 거치면서 면면히 이어져 온 것이다. 특히 북한에서는 氣一元論의 唯物論을 주장한 徐敬德과 任聖周를 비롯하여 근대 유물론의 시초인 崔漢綺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⁴⁷⁾ 이들이 북한 역사관점에서는 사관변화에 관계없이 주체시대 도래이전의 '3대 유물론자'인 셈이다.

이외에도 당시 지배이데올로기에 반대한 사람들을 북한에서는 '진보적'이란 수식어를 붙여 평가하고 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관념론을 버리지

46) 張維(호는 溪谷, 1587-1638)는 조선조 16대 인조 때의 사람으로 인조반정에 공을 세워 대사간·대사성을 지내고, 정묘호란 때 강화로 임금을 수행해서 벼슬이 우의정에 이른 유학자이다. 남한학계에서는 거의 연구되지 않는 인물인데 북한에서는 선행한 기원론적 철학사상을 계승한 17세기 대표적인 유물론자로서 동시대의 진보적 사상가라고 평가하는 윤휴, 朴世堂보다 높이 평가하고 있다.

47) 정성철, 『실학파의 철학사상과 사회정치적 견해』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4; 서울: 한마당, 1989), p.94.

못했지만 지배계급 내에서 반동적인 세력에 대항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肯定的인 평가를 받는 인물들이다. 시무 28조를 제시한 고려 전기의 최승로, 고려 후반기의 이색, 정도전, 李滉의 견제로 뜻을 펴지 못한 서경덕의 제자인 이구, 17세기 송시열의 유교관념론에 대항했던 이수광, 윤휴, 박세당, 초기 실학파인 유형원, 이익, 중기 실학파인 홍대용, 박지원, 박제가, 후기 실학파인 정약용, 이규경 등이 소위 '그 시대의' 진보적 인물들이다.

그 반대로 '반동적' '보수적'이란 수식어가 붙는 관념론 대표자를 예로 들면, 김시습의 유물론과 투쟁한 權近, 서경덕 시대의 李滉, 장유와 투쟁한 宋時烈 등이다. 서경덕, 이황의 평가에 빠져서는 안 되는 李珣에 대해서는 理氣二元論을 주장한 점에서 李滉에 비해서 다소 긍정적인 평가를 하나⁴⁸⁾ 지배계급내에서의 양보와 개량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반동의 계보에 포함시키고 있다. 李珣의 제자인 한원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평가를 내리고 있다.⁴⁹⁾

유물론 흐름에 대한 시대 구분에서는 주체사관 도입이전과 이후를 비교할 때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1950년대 말부터 1960년대 초에 벌어졌던 시기구분논쟁이 일단락된 이후에는 유물사관적 관점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유물론을 評價하는 視角은 평가시기에 따라 상당히 차이가 있다. 이점을 감안하지 않고는 북한역사관계 자료나 사상서적을

48) 이황, 이이에 대한 북한의 평가는 남한의 역사해석과 가장 차이가 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남한에서는(하자마다 조금씩의 견해차가 있으나) 대체로 李滉은 理氣二元論을 주장한 것으로, 李珣는 이황의 理氣二元論에 대립하여 氣發理乘一途說을 주장하고 理通氣局을 창안하여 기호학파를 이룬 것으로 평가하는데 반해, 북한에서는 서경덕은 氣一元論의 유물론자인데 비해 李滉은 理一元論의 客觀觀念論者로 평가하며, 李珣는 氣一元論 철학에도 반대하면서 理氣二元論에 기초한 客觀觀念論을 주장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49) 조성율, "유학의 수용과 발달," 안병우·도진순 편, 『북한의 한국사인식』(I) (서울: 한길사, 1990), pp.388-389.)

이해하는 데 적지 않은 혼동을 겪게 된다. 앞 절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가장 큰 기준은 主體思想이다. 그리고 이를 지시하는 김일성의 敎示이다.

예로서 『조선철학사』(1960)는 주체사상 정립이전의 저술로서 주체사상적 요소가 전혀 드러나지 않으며 오직 唯物史觀에 기초하여 민족적 문화의 우수성을 강조하고 있다. 즉 유물사관과 民族史觀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이다. 물론 김일성의 교시도 삽입되어 있지 않다. 또한 1977년판 『조선통사』는 주체사상 도입 이후의 저술이기는 하나 아직 완전히 주체사상적 입장이 철저히 반영되어 있지는 않다.

주체사상의 입장이 철저히 반영된 것은 『조선전사』이다. 조선전사는 북한 역사학계가 총동원되어 1973~1982년에 33권(연표 2권까지 포함하여 35권)으로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에서 편찬하여 간행한 방대한 역사서이다.

“『조선전사』에서는 인류발생의 첫 시기부터 사회발전의 모든 단계를 거쳐오면서 자연을 개조하고 사회를 변혁하여 민족의 존엄과 명예를 떨쳐온 선조들의 슬기로운 역사를 사회발전의 합법칙성에 따라 체계화하여 서술하였다. 특히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혁명활동의 개시로부터 영광찬란한 길을 걸어온 현시대, 주체시대의 역사를 전면적으로 체계화하였다”는 發刊趣旨를 볼 때, 이 책은 북한의 공식사관인 主體史觀에 입각하여 김일성의 혁명활동에 큰 비중을 두어 서술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주체시대 이전의 진보적, 유물론적, 변증법적인 것에 대한 평가면에서 이전의 책들에 비해 매우 인색하다. 즉 위대한 주체시대가 도래하기 전까지의 진보성은 근본적으로 시대의 흐름을 모른 상황에서 출현한 시대적 제한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결국 『조선전사』에는 주체사상에 의거한 現實中心의 特性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조선전사』 이후에 간행된 『조선철학사 개요』(1986)에서는 주체사상에 따른 편향이 다소 시정되는 기미가 보이며 가장 최근에 간행된 『조선철학사』(Ⅱ)(1987)와 “조선에서 철학사상의 발생과 발전”

(1990)⁵⁰⁾에서는 오히려 처음의 『조선철학사』의 입장으로 回歸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이는 앞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수령에 의해 영도되는 인민대중과 그렇지 못한 경우의 인민대중을 구분하기 위해 ‘자주적인 주체’ 개념을 설정한 이후, 수령 이전시대의 계급투쟁적 시각을 다소 완화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결과의 반영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서 북한에서는 유물론적 관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2. 북한 唯物論의 흐름 및 주요 人物

(1) 朝鮮朝 以前の 唯物論 : 고대, 삼국, 李奎報, 金時習

북한식 唯物史觀的 歷史區分에서 첫 시기에 해당하는 것은 ‘고대조선’⁵¹⁾이다. 이 시기에는 進歩的 노예소유자 계급과 反動的 노예소유자 계급의 존재를 설정하고 난 후, 전자의 유물론·변증법과 후자의 관념론·종교사상의 대립이라는 도식을 도입하고 있다. 이런 도식은 계속해서 이후의 모든 시기에 적용되고 있다.

진보적 노예소유자 계급은 세계를 밝은 氣와 어두운 氣의 대립물의 통일로 보는 소박한 유물론을 가지고 있었고, 이 대립물의 투쟁과정에서 모든 사물이 발생·발전한다는 自然發生的 辨證法을 지니고 있었다고 본다. 특히 진보적 계급은 중국에서 도입된 陰陽五行思想 가운데 유물론적 부분을 섭취하여 철학세계를 더욱 발전시켰다고 하나 더 이상 구체적인 언급은 없다.⁵²⁾ 반면 반동적 노예소유자 계급은 노예제도를 합리화하기

50) 이것도 정성철이 쓴 글이다. 이 논문은 1990년 4월 17일부터 25일까지 폴란드 바르샤바대학에서 개최된 구주한국학회(ASKE: Association of Korean Studies in Europe)에서 발표되었다. 池敎憲, “북한의 實學 研究成果에 대한 分析,” 池敎憲·沈慶奭 외, 『北韓의 韓學 研究成果 分析(철학종교·어문편)』(서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pp.134-136 참조.

51) 북한 역사학계가 1960년대초에 정립한 시대구분에 따르면 고대조선은 대체로 고조선, 부여, 진국의 시기에 해당한다. 기원전 9~8세기에 고조선이 노예소유자 국가로서, 기원전 6~5세기에 부여, 진국이 고대국가로서 확립되었다고 본다.

52) 정진석·정성철·김창원, 1960, 앞의 책, pp.10-11.

위해 超自然的인 하늘신 숭배사상을 만들어 국왕을 하늘신의 후예로서 그를 대신하여 인간사회를 지배하였다고 한다.⁵³⁾

이렇게 세계의 始原을 氣로 보고 밝은 기와 어두운 기의 상호작용에 의해 만물이 발전한다는 유물론·변증법이 중세 유물론 발전의 기초가 되었다고 명백히 표현하고 있으나, 고대 유물론 전통이 어떻게 중세에 이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조선철학사 개요』에서는 단군신화, 해모수 신화 등에 의거하여 고대조선의 철학의 발생을 설명하면서 바람, 비, 구름, 불, 물의 예를 들면서 유물론의 출발을 설명하고 있는 점이다.

다음 시기는 봉건사회가 시작된다고 보는 三國時期이다. 남한 학계에서는 대체로 羅末麗初를 중세로의 전환기로 삼는데 반해 북한에서는 기원전 1세기를 전후하여 고대 노예소유자 국가들인 고조선, 부여, 진국은 멸망하고 대신 봉건국가들인 고구려, 백제, 신라 등 三國이 형성되었다고 본다.

우선 삼국시대 철학 발전의 주도를 봉건적 통치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宗教的 觀念論과 進步的 農民階級의 이해를 대변하는 철학적 견해와의 투쟁으로 파악한다. 외래 사조로서의 유·불·도교를 지배이데올로기로 파악하고 있으며 음양오행 사상의 유물론적 측면이 농민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보고 있다. 삼국의 봉건 지배계급들이 佛敎를 통해서 근로인민대중 속에 허무주의와 무저항주의를 주입시켜 그들의 자주주의와 투쟁의식을 마비시키는 것과 함께 儒敎를 통해서 충군사상과 충효사상을 퍼뜨려 그들로 하여금 반동적 봉건통치와 윤리도덕 질서에 절대순종하는 노예로 만들려고 했다고 보고 있다.⁵⁴⁾

다음 시기인 통일신라시기를 북한에서는 주체사관이 정립된 이후부터 발해·후기신라 시기라고 고쳐 부르는데, 이는 발해와 高句麗의 전통을

53)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조선통사』 (평양, 1977; 서울: 오월, 1988), pp.71-72.

54) 최봉익, 1986, 앞의 책, pp.28-29.

북한이 이어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 생각된다. 渤海를 중요시해야 한다는 것과 외국의 힘을 빌어 통일한 신라의 삼국통일을 진정한 통일이라고 볼 수 없다는 고구려 중심의 역사해석의 결과라 하겠다.

이 시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유물론적 측면에서 기술하고 있지 않다. 삼국통일전쟁의 종식 뒤 봉건적 생산관계는 더욱 발전하였으며 농민의 봉건적 예속은 더 강화되고 봉건적 신분제는 공고히 되는 가운데 통치자와 피통치자 사이의 모순과 아울러 귀족 내부의 알력이 심해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에 따라 佛教의 觀念論的 측면과 儒敎의 觀念論的 측면의 설명에 치중하고 있다.

高麗時代는 봉건적 지배체제가 한층 강화된 시기로 파악하고 있다. 고려를 전기, 후기로 나누어 보고 있는데, 『조선철학사』에서는 고려 전기를 지배계급이 유교를 점차 통치사상으로 확립한 시기로 서술하고 있는 반면,⁵⁵⁾ 『조선전사』에서는 이 시기의 철학적 사유의 발전은 주로 불교철학의 형식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상대적으로 유학에 대한 언급이 미약하다. 진보적 사상조류의 대변자로서 최승로를 들고 있는데 이는 시무 28조의 개혁안 제기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불교의 계급적·인식론적 근원을 이해하지 못한 채 불교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라 했을 뿐 아니라, 유교의 숙명론을 지니고 있었다는 점에서 전체적으로 볼 때, 일부 진보적 요소와 함께 부정적·보수적 측면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렇게 볼 때 이 시기의 서술적 특징은 유물론 대 관념론의 대립도식이 아니라 儒敎와 佛教의 대립으로 본다는 점이다. 객관관념론 대 주관관념론의 대립이라는 이른바 무신론과 유신론의 대립으로 보고 있을 뿐, 이 시기의 유물론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따라서 통

55) 정진석·정성철·김창원, 1960, 앞의 책, pp.40-42.

일신라 이후 고려전기까지의 유물론에 대한 서술은 비어 있다. 그러다가 고려 후기에 李奎報의 유물론이 사상적 맥락없이 갑자기 등장하고 있다. 이후 북한의 사상사는 대체로 고려 후기 이래 儒敎內에서의 唯物論과 觀念論의 대립을 다룬다고 할 수 있다.

李奎報(호는 백운거사, 1168-1241)는 북한 '역사'에 등장하는 최초로 공인받은 유물론자이다. 당시 외침과 농민투쟁의 양양 및 통치계급 내부 압력의 격화 속에서 民衆의 이익을 대변하는 선진적 지식인 가운데 대표적 인물로 그를 평가하고 있다. 그는 혼돈상태의 물질적인 '원기'를 세계의 시원으로 보는 唯物論的 견해와 사물현상의 발생발전의 원인을 그 자체에서 찾는 辨證法的 사상을 내놓았다고 한다.

“사람과 만물은 다 혼돈에서 정해져서 자연히 발생하니 하늘도 모르고 조물주도 모른다... 원기가 처음으로 갈라져서 위로는 하늘이 되고 아래로는 땅이 되었는데 사람은 그 가운데 있다”라는 『동국이상국집』(11권, 問造物)의 한 귀절을 인용하면서 그의 사상의 의미를 정의하고 있다. 물론 사회정치적 철학사상은 봉건적 통치질서를 절대적인 것으로 변호하는 본질적 제한성을 가지고 있기는 했지만 사회모순을 폭로하고 民衆을 동정하며 강한 愛國主義 사상을 갖고 있었다는 점에서 고려시기의 우리 나라 진보적 철학사상에 적지 않은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한다.

李奎報와 관련하여 한 가지 덧붙일 사항은 『정치사전』(1985)의 ‘조물주에게 묻노라’ 항목이다. 이 항목은 『동국이상국집』에 실린 ‘問造物’을 ‘조물주에게 묻노라’로 번역하여 소개하고 있는 것인데 이를 李奎報의 “무신론적이고 유물론적인 철학사상이 집중적으로 담긴 논문”⁵⁶⁾ 이라고 평가하면서, 대표적 귀절로서 “대체로 만물은 절로나고 절로 변화하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만들며 무엇을 알겠는가? 그러므로 나를 이름지어 조물주라고 하는 것조차도 나는 또 모르노라”라는 조물주의 답을 소개하고 있다. 그런데 李奎報의

56) 『철학사전』, 앞의 책, pp.615-616.

유물론이 도대체 어디서 연원하며 뒤에 어떻게 계승되는지, 당시 다른 사상과는 어떤 관계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이 없다.

정도전에 대해서는 증소지주계급의 이해를 대변하는 이성계 일파의 정치변혁 이론가로서 매우 높이 평가하고 자세히 다루고 있으며, 『불씨잡변』에서 불교의 철학적 입장인 윤회설·인과설 등을 논리정연하게 비판한 排佛論者로서 평가하고 있다. 특히 현실세계를 氣의 변화로써 설명한다 하여 소박한 유물론자로 평가하면서 이색과 함께 무신론 사상가로 구별하고 있다. 물론 주체사관정립 이후 이들의 前近代的 思想의 한계 특히 경제·사회사상적 측면에서의 한계를 부각시켜 평가절하하고 있지만 유물론적이거나 무신론적 측면은 변함없이 계속 강조되고 있다. 즉 한 개인의 인식론적 측면과 실천론적 측면의 유리를 전제하는 평가의 양면성을 보이고 있다.

조선조 15세기는 權近의 관념론 철학과 金時習의 유물론 철학을 대비시켜 서술하고 있다. 金時習(호는 매월당 또는 동봉, 1435—1493)은 불교와 노자에 반대한 唯物論者로서 높이 평가하고 있다.

양반가정에 태어나 유학공부를 했으나 세조가 왕권을 탈취하고 수많은 유학자들을 학살한 데 대하여 불만을 품고 일생동안 방랑생활을 하면서 유물론적 철학사상을 형성시켰다고 소개한다. 그는 物質的인 氣로써 사물현상들의 발생발전과 세계의 본질을 설명하는 소박한 변증법적 견해도 표명했다고 한다. 특히 이러한 진보적 철학사상에 기초하여 유교의 천신 숭배사상과 도교의 장생불로설과 신선술을 부정하고 불교의 극락세계를 배척했다고 한다. 물론 그의 철학사상과 사회정치적 견해들은 비록 본질적 제한성을 가지고 있기는 하였으나 당시의 사회역사적 조건에서는 '총체적으로'⁵⁷⁾ 進歩的이었다고 평가한다.

57) 이러한 표현은 북한에서 사상이나 사상가들 평가할때 자주 쓰는 상당히 저칠면서도 편리한 表現이다. '일반적으로', '일정하게', '총적으로' 등도 함께 쓰고 있는데, 이는 대개 긍정과 부정의 양면적인 측면을 종합하여 평가할 때 사용하는 표현방법이다.

『조선통사』에서는 김시습의 제자 남효온과 함께 앞선 시기의 氣一元論의인 중세유물론과 무신론사상을 계승·발전시킨 점을 언급하고 있으나 그 연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다. 결국 주자학의 객관관념론에 대한 유물론의 대립으로서 金時習을 위치지우고 있다.

(2) 16세기 유물론 : 花潭 徐敬德의 氣一元論의 唯物論

김시습과 함께 徐敬德(호는 花潭 1489-1546)을 조선 초기의 유물론자로 이해하고 있으며, 특히 중세의 유물론 철학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한 氣一元論의 唯物論者로 평가하고 있다.

하층양반 가정에서 태어나 집권 훈구파들의 반동적 정책에 불만을 품고 벼슬길에 나서지 않고 개성의 화담언덕에 서재를 짓고 가난한 생계를 유지한 인물로 소개되고 있는 화담은 氣의 物質的 성격을 동방 중세철학사에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밝힌 바 있다고 평가받는다. 특히 현실세계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며 그 본질은 물질적인 氣이며 모든 것은 氣의 각이한 존재형태라고 한 점을 강조한다.

그는 인간의 정신현상도 氣의 현상에서 비롯되며, “기는 무한한 우주 공간에 충만되어 있는 지극히 미세하고 유동적인 먼지와 같은 물질적 입자이며 소리도 냄새도 없고 일정한 형체도 없는 혼돈상태의 물질적 실체이며 시초와 종말도 없고 창조되지도 소멸되지도 않는 영원한 객관적 실재”⁵⁸⁾라고 생각했으며, 이런 氣가 작용하여 구체적인 사물을 형성하기 이전의 원래의 존재형태를 ‘태허’라고 정의하고 氣의 불가창조성과 불가소멸성을 주장하였다 한다. 여기서 理는 氣에 내재한 법칙이 되며, 또 太虛는 자기의 내적 원인에 의해 필연적인 운동을 하며, 이 운동의 근원을 음양등 대립물의 투쟁과 통일로 보았다 한다. 이로써 徐敬德이 唯物論과 辨證法의 입장을 지켰다고 주장한다.

인식론에서도 존재론적 측면의 유물론적 해석에 기초하여 여기에서도 氣

58) 정성철, 1987, 앞의 책, pp.128-129.

一元論的 唯物論적 입장을 견지하였다 한다. 즉 객관세계를 인식대상으로 하고 물질적 기관인 心의 작용에 의해 사물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라 하였으며 여기서 經驗觀察이 중시된다고 하였다 한다.⁵⁹⁾ 그러나 주체사관 이후 평가에서는 이렇듯 비교적 진보적이고 높은 수준의 유물론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식에서 實踐의 역할을 이해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사회와 인간의 문제에 대하여는 성선설을 기초로 한 도덕수양론을 견지해 관념론적 성향을 보이고 있다고 平價切下하고 있다.⁶⁰⁾ 즉 자연관의 유물론과 사회·인간관의 낙후성을 二元化시켜 평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徐敬德은 당시의 철학계에서 중요한 논쟁문제로 되어 있던 理와 氣의 상호관계문제를 유물론적으로 해결하고 주자성리학적 객관관념론의 기초를 흔든 인물로서 높이 평가하고 있다.

한편 『조선철학사』(Ⅱ)에서는 徐敬德의 유물론적 자연관은 李奎報, 金時習의 유물론 및 중국의 장재의 氣一元論的 唯物論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대체로 외부의 영향을 잘 인정하지 않고 독자적 발전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던 경향과는 다른 주체사관 修正의 한 예로 볼 수 있다.

(3) 17세기 유물론 ; 張維의 唯物論

張維(호는 谿谷, 1587-1638)는 17세기 초엽에 활동한 유물론 철학자로 평가한다. 북한에서는 15세기 유물론을 金時習이 대표하였고 16세기의 유물론을 徐敬德이 대표하였다면 17세기는 張維가 유물론을 대표한다고 본다.

그는 철학의 근본문제에 관한 이해에서도 기본적으로 유물론적 입장에 서 있었고,⁶¹⁾ 자연계의 모든 사물의 변화에 관한 명백한 견해를 제기하

59) 정진석·정성철·김창원, 1960, 앞의 책, p.124.

60)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조선전사』, 제9권(중세편:리조사2) (평양, 1980) 참조.

61) 정성철, 1987, 앞의 책, p.257.

고 있었으며,⁶²⁾ 인식론에 있어서도 다분히 유물론적이었다는 것이다.⁶³⁾ 그는 물질적인 기를 한계가 없는 微粒子 즉 '무극자'라고 부르면서 氣에 관한 종래의 유물론적 견해를 심화 발전시켰다고 평가한다. 그는 기에 관한 견해에 입각하여 무극자로 이루어져 있는 우주자연이 시공간적으로 무한하다는 견해와 사람의 정신, 의식까지를 포함하여 세계의 모든 사물 현상이 합법칙성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변증법적 견해를 내놓았다고 한다.

그는 특히 인식과정에서 실지 行動의 의의를 강조하면서 진리를 탐구하려면 반드시 행동을 해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북한에서 張維를 높이 평가하는 부분이다.

물론 張維의 사회역사관과 사회정치적 견해도 기본적으로 당시의 사회제도를 옹호하였다는 점에서 관념론적이고 봉건적이었으나, 당시로서는 일련의 진보적 견해들을 제시함으로써, 결국 '총체적으로' 進步的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4) 18세기 유물론 : 鹿門 任聖周의 氣一元論의 唯物論

任聖周(호는 鹿門, 1711-1788)는 18세기 주자 성리학의 주리론 및 주기론을 반대하여 투쟁한 氣一元論의 唯物論 철학자로서, 하층 양반출신으로서 한때 군수를 지낸 후 공주 녹문에서 후대교육에 종사한 것으로 파악한다.⁶⁴⁾

그는 李珣학파의 주기론으로부터 출발하였으나 徐敬德의 기일원론적 유물론을 계승하여 자기의 유물론적 철학세계를 확립한 18세기 저명한

62) 앞의 책, p.258.

63) 앞의 책, pp.259-260.

64) 남한학계에서 기일원론을 주장한 氣哲學者로 다루는 비증과는 달리 북한에서는 유물론의 주류를 이어가는 중요한 인물로 평가하고 있다. 남한의 견해에 대해서는 尹南漢, "韓國의 氣思想과 氣學", 『世界의 大思想』, 제33권(1977), pp.17-32; 金文俊, "鹿門 任聖周의 理氣哲學에 관한 一考", 『한국철학논집』, 제1집(1991), pp. 52-76 참조.

철학가라는 것이다. 『조선철학사』(Ⅱ)에 실린 그에 대한 평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리조시기 유물론은 16세기에 서경덕에 의하여 높은 발전을 이룩하였으나 서경덕 이후 유물론을 반대하는 주자성리학의 반동적 공세로 하여 다시 대두되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기일원론적 유물론의 기치를 선명하게 들고나와 유물론의 권위를 회복시키고 그를 가일층 발전시킨 것은 바로 18세기 립성주였다. 그만큼 립성주는 리조시기 기일원론적 유물론 발전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철학자였다. 립성주의 자연관은 철저히 유물론적이었다.”⁶⁵⁾

그의 자연관은 ‘氣一分殊’의 주장에서 가장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데, 그는 세계의 다종다양한 사물현상들이 모두 다 정신적인 理로 통일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주자성리학의 관념론적 ‘理一分殊說’을 반대하고 천지만물은 물질적인 氣에 의해 통일되어 있으며 동일한 氣에서 발생한 사물현상들의 다양성은 氣의 각이한 속성과 운동의 다양성에 의하여 주어졌다는 유물론적인 氣一分殊의 사상을 제기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자연관에서의 유물론적 견해는 徐敬德의 유물론 철학사상의 계승에서 나온 것이며, 동시에 중국의 유물론자 장재, 나훔순의 철학을 관념론의 공격으로부터 옹호하는 데서 나왔다는 것이다. 그의 『녹문집』에 실린 『鹿 雜識』에 이러한 유물론적 입장이 잘 나타나 있다고 하면서 많은 예를 들고 있다. 물론 빼놓지 않고 윤리도덕적, 사회정치적 견해는 다분히 관념론에 치우치는 면이 있다고 그 한계성을 지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任聖周 철학사상의 철학사적 의의는 18세기 徐敬德의 유물론을 계승한 氣一元論的 唯物論으로서, 통치사상으로서의 주자성리학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였으며 그 후의 유물론 철학발전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한다.⁶⁷⁾

65) 정성철, 1987, 앞의 책, pp.280-281.

66) 앞의 책, p.284.

67) 『조선철학사 개요』에서는 다른 책에서의 분류와 달리 任聖周에 대해 독립된 장을 할애하여 비중있게 다루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5) 19세기 유물론 : 崔漢綺의 唯物論

崔漢綺(호는 惠崗,⁶⁸⁾ 1803-1879)는 북한에서 우리 나라 最大의 唯物論者로 평가받고 있다. 종래의 실학과 氣一元論的 唯物論 哲學을 집대성시켰을 뿐 아니라 실학사상과 근대 부르조아 개화사상 사이에 다리를 놓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한다. 특히 그의 유물론은 근대자연과학에 기초한 점에서 近世 唯物論으로의 이행을 알리고 있고, 그 동안 지속되어온 유물론과 관념론의 투쟁을 유물론의 승리로 이끌었다고 평가하면서, 이전의 유물론자와 다른 점은 實踐(行)의 기준을 봉건적인 윤리도덕에 두지 않았을 뿐 아니라 ‘行先知後’를 내세운 점⁶⁹⁾이라는 것이다.

그는 氣는 질과 중량을 가지고 있으며 자체의 고유한 운동능력이 있으며 더는 쪼갤래야 쪼갤 수 없는 始原的인 物質의 실체라고 보아, 理는 氣의 운동원리이며 질서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고 한다. 또한 ‘動’과 ‘靜’의 상호관계를 밝히면서 운동 가운데 정지가 있고 정지 가운데 운동이 있다고 보았고, ‘有’와 ‘無’도 ‘有’ 가운데 ‘無’가 있고 ‘無’ 가운데 ‘有’가 있다는 변증법적 사고를 하고 있다고 한다.

사회정치적 사상에서도 사람의 平等을 강조하여 봉건적 신분제도를 반대하고 사·농·공·상의 사민평등사상을 주장하고, 세계만민의 평등을 강

68) 최한기의 號가 북한책에 통일되어 있지 않고 책마다 달리 쓰여 있다. 『조선철학사』(1960)와 『력사사전』(1971)에는 나와 있지 않고, 정성철의 『실학파의 철학사상과 사회정치적 견해』(1974)에 패동(溟東)이란 호를 처음 소개하고 있다. 그 후 『조선전사』(1980)에서는 동강과 명남루를, 『철학사전』(1985)과 최봉익의 『조선철학사 개요』(1986)에는 동강이란 호를 한글로 소개하고 있고, 정성철의 『조선철학사』(Ⅱ)(1987)에는 패동, 해강, 명남루라는 세 가지를 쓰고 있어, 호가 달라지는 이유가 흥미롭다. 해강은 해강의 오기인 듯한데 북한의 오기인지 남한 복사본(이성과 현실, 1988)의 오식인지 원전을 구할 수 없어 확인하지 못했다. 참고로 남한학계에서는 자를 藝老, 호를 惠崗 또는 溟東을 쓰고 있다.

69) 최한기는 ‘知先行後’의 관념론적인 견해를 반대하면서 ‘行先知後’ 즉 먼저 실천이 있는 다음에야 비로소 아는 것이 있게 된다고 했다는 것이다. 정성철, 1974, 앞의 책, p.595 참조.

조했다고 한다. 특히 그의 개국론은 愛國思想에 기초한 것이고, 당시 발전하고 있던 자본주의적 관계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서 매우 진보적인 의의를 지닌다고 평가한다.

물론 그의 철학사상에 그 자신의 계급적 제한성과 역사적 제한성으로 인해 봉건왕의 존재를 인정하고 유교도덕을 시인하면서 계몽된 군주에 의해 봉건제도를 개혁할 것을 제안한 본질적인 결합은 있지만, 崔漢綺는 봉건말기 자본주의적 관계가 싹트고 있던 시기에 유물론적 세계관에 기초하여 실학을 제기하고 자본주의적 개혁에 관한 사상을 많이 제기함으로써 유물론사상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한다. 이러한 비중을 나타내듯이 『조선철학사』(Ⅱ)(총 600여 페이지)에서는 崔漢綺의 사상을 무려 70여 페이지에 걸쳐 다루고 있다.

(6) 實學派와 유물론

북한의 역사평가기준에 따르면 實學派⁷⁰⁾는 모두 유물론자이며, 조선의 지배이데올로기인 주자성리학의 관념론적 입장에 반대한 진보론자이다. 그런데 실학파에 대한 평가는 肯定/否定의 兩面性을 병행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다시 말해 실학사상가들을 唯物論的 進歩性과 觀念論的 封建性을 동시에 지닌 사상가로 평가한다. 자연관과 인식론에서는 유물론적 요소를 다분히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회정치적 개혁사상에서는 양반계급적 본질과 시대적 제약성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주체사상정립 이후에는 앞에서 본 崔漢綺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요컨대 유물론을 중심으로 보는 시각에서 실학파의 대부분은 유물론의 主流에는 속하지 않는다. “16세기 서경덕을 위수로 하는 유물론을 직접 계승한 것은 18세기의 유물론자 립성주

70) 북한에서 정의하는 실학파는 책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시기별로 나누어 우선 실학파의 선행자로서 서경덕과 이수광, 初期 실학자로서 유흥원, 이익, 中期 실학자로서 홍대용, 박지원, 박제가, 정약용, 末期 실학자로서 이규경, 최한기를 들고 있다.

이며, 기일원론적 유물론을 가장 높은 단계로 심화발전시킨 것은 19세기 중엽의 우리 나라 봉건시기 가장 이름있는 철학자 최한기”⁷¹⁾이기 때문이다.

북한평가에 따르면, “서경덕의 기일원론적 유물론과 해당 시기의 자연 과학적 성과에 기초하여 유물론을 발전시킨 실학사상가는 홍대용, 박지원, 리규경이고, 자연관과 인식론에서 유물론적 요소를 다분히 가지고 있으면서도 리이와 리황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중요한 인물은 류형원, 리익, 정약용”⁷²⁾ 등이다.

평가의 양면성 병행이라는 특징 외에 평가기준 자체의 左·右 偏向的 振動을 또하나의 특성으로 들 수 있다. 즉 실학사상의 역할을 높게 평가할 필요가 있을 때는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고, 평가절하가 필요한 경우에는 부정적인 면을 강조하는 식이다. 평가기준의 진동의 직접적 원인은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치적 정통성을 확립하기 위한 이른바 ‘歷史 國有化’ 과정과 관련이 깊다.

실학과와 관련된 그 과정은 김일성의 敎示를 분석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주체사상을 강조하는 시기에 김일성은 실학사상에 대한 평가를 예로 들면서 주체사관의 정립을 도모했기 때문에 實學評價에 관련된 교시가 적지 않다. 그 가운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例示하면 다음과 같다.

事例 1: “력사학분야에서도 아직 해명하여야 할 문제들이 많습니다.…력사학에서는 또한 실학자들도 올바르게 평가하여야 합니다.”(『사회과학의 임무에 대하여』, p.160.)

事例 2: “실학파들이 어떤 이론에 기초하여 사대주의를 반대하였는가를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소유한 학문은 그 자체가 유물론적이

71) 앞의 책, p.94.

72) 앞의 책, p.94.

못되고 많은 경우에 관념론적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나라 력사에서 실학파의 존재도 귀중하며 좋은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실학파가 그 당시 봉건사회에서 일정한 진보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 오늘에 와서까지도 무슨 큰 의의가 있는 것처럼 볼 수는 없습니다. 실학파의 글은 오늘에 와서 력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하지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서 배울 것이란 별로 없습니다.”(『철학사전』, 1970년판, ‘실학파’항목 참조.)

“지금까지 력사학들을 비롯한 우리 학자들이 옛날 책에 대하여 평가한 것을 보면 많은 경우에 너무 과장하여 써놓았습니다. 특히 실학파들이 내놓은 리론들에 대하여 지나치게 높이 평가하였습니다.”(『조선문화사』, 1977, pp.482-483.)

事例 3: “우리가 실학파들의 역할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력사적 사실을 부정하고 지난날 우리 민족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은 허무주의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 속에서 민족적 자부심을 높일 수 없고 우리 인민들의 혁명적 기세를 올리는 데도 나쁩니다. 그렇다고 하여 지난날의 사실을 과장하여서는 안 됩니다. 력사적 사실들을 바로 평가하여 우리의 새 세대들에게 옳은 인식을 주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조선전사』, 제10권, pp.5-6.)

事例 4: “우리는… 진보적인 사상을 내놓은 실학파 인물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여 이들의 업적을 사실과 맞지 않게 과대평가하며 무비판적으로 지나치게 내세우는 것은 잘못입니다. 우리는 이들에 대하여 어디까지나 계급적 입장에 튼튼히 서서 비판적으로 대하여야 합니다.”(『조선철학사』Ⅱ, p.295.)

事例 5: “실학파의 사상을 변증법적 유물론에 끌어올려도 안되며 봉건 사상으로 보아도 안됩니다. 박지원의 <열하일기>를 보면 우리 나라에서 상공업을 발전시킬 것을 제기하였는데 이것은 결국 자본주의길로 나갈 것을 요구한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실학파의 사상을 지나치게 내세워

그것을 노동계급의 혁명사상과 같이 보는것도 잘못이며 그 진보성을 부인하는것도 잘못입니다.”(『조선철학사 개요』, p.234.)

〈事例 1〉은 “맑스-레닌주의의 유물사관에 기초하여 자본주의 발생발전문제, 고조선문제, 노예사회문제, 인종문제 및 실학평가문제를 조선의 역사적 조건과 민족적 특성에 맞게 창조적으로 활성화할 것”을 지시한 1963년 담화의 일부분이다. 따라서 마르크시즘의 唯物史觀을 토대로 민족문화의 우수성을 고양시키라는 뜻에서 실학과를 “옳바르게” 평가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역사학연구가 민족복고주의 명분으로 비판받기 직전의 시기에 해당되는 교시이다.

반면 〈事例 2〉는 民族復古主義에 치우쳐 右偏向된 역사관을 바로 잡으라는 것을 지시한 내용이다. 주체사관에 따른 당성, 노동계급성 및 역사주의적 관점을 관철시켜 해석하라는 지시이다. 그 결과 실학사상은 봉건적 울타리를 넘을 수 없는 觀念論으로 전락하고 만다. 만일 북한에서 전통사상 가운데 조금도 부정적으로 평가될 수 없는 완벽한 사상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김일성 유일사상인 주체사상을 절대적인 사상으로 받들 수 있는 논리적 근거가 약해진다는 主體思想 形成期의 필요성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본다. 그러던 중 주체사상이 어느 정도 확립된 다음에는 〈事例 3〉 〈事例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학사상의 肯定的 評價를 제한적인 한도내에서 수용하고 있다.

〈事例 5〉는 결국 실학파의 사상을 “로동계급의 혁명사상도 봉건주의사상도 아닌 자본주의적 관계가 형성되어가던 시기에 반동적 봉건통치배들을 비판하고 자본주의길로 나갈것을 지향한 진보적인 철학사상조류”로 해석함으로써 주체사관의 엄격한 적용에서 벗어나 실학사상의 역사적 역할을 평가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에 정성철은 「조선에서 철학사상의 발생과 발전」(1990)이라는 논문을 발표한 바 있는데, 여기에서도 主體史觀 修正期의 실학평가를 엿볼 수 있다. 그는 이익, 홍대용, 박지원, 박제가,

정약용, 이규경, 최한기 등을 실학사상가의 대표자로 보면서 15-16세기 중세유물론 발전의 개화기라면 17세기 이후는 원숙기로 특징지을 수 있다고 전제하고 任聖周의 이기론을 소개한 다음, 氣一元論的 唯物論이 실학사상가들의 철학사상에서 심화발전됨으로써 중세유물론이 가장 높은 단계에 다다를 수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아울러 실학사상가들의 변증법사상은 사회개혁사상을 제기하는 이론적 기초가 됨으로서 변증법과 유물론이 서로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물론 시대의 제약성과 양반계급적 제한성으로 한계는 있지만 부분적으로 人民들의 이익을 옹호하였으며 자본주의 발전의 맹아가 싹트고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다.⁷³⁾

이러한 긍정적 평가는 역사발전과정에서 인민대중 이외의 제계층의 역할을 상당부분 인정하려는 즉, 계급주의 관점을 어느 정도 緩和하려는 시도에서 나온 평가라고 본다.

IV. 評 價

북한 역사서술의 목적은 반만년의 유구한 민족의 역사성이 사회적으로 는 줄기찬 階級鬭爭의 모습으로 부각되고, 사상적으로는 唯物論的, 辨證法的 사상체계가 일관되게 正史로 나타나도록 하는 데 있다. 그리하여 우리 민족을 세계 제일의 훌륭한 사상적 전통을 가진 민족으로 부각시켜 대내외적으로 과시함으로써 이른바 主體思想을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이 용함에 있다.

한마디로 주체시대로 이어지는 사상적 연결고리를 만들어가는 임무를 역사학이 떠맡은 것이다. 거기에 등장한 잣대(개념)가 '唯物論'이다. 여기에 사관의 변화에 따라 계급주의 관점, 자주적인 관점이 추가되면서 북한의 '역사'는 조금씩 그 해석을 달리해왔다.

다시 말해 정치적 정통성을 창출해가는 과정에서 특히 주체사상을 정

73) 앞의 글, pp.12-19; 池敎憲, 1991, 앞의 글, pp.135-136 참조.

립해가는 과정에서 북한의 '역사'는 現在中心的으로 탈바꿈해왔다. 정치 체제 특성상 역사는 이미 개인의 손을 떠나 집단토의의 산물이 되어버렸고 그 결과 '역사'는 철저히 '國有化過程'을 거쳐왔던 것이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유물론중심의 북한의 역사관을 어떻게 評價해야 하는가? 북한역사관을 남한의 기준에 맞추어 흑백식의 평가를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⁷⁴⁾ 남한 역사학계는 북한과는 달리 학자마다 시각도 다양하여 하나의 기준을 찾기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굳이 남한학계의 공통기준을 만들어 북한역사전개 논리 및 시각을 비교·비판해 본들 진정한 의미의 남북학술교류가 불가능한 지금 이 상황에서는 또 하나의 양단논리에 설 수 밖에 없다.⁷⁵⁾ 따라서 여기서는 북한역사관 전개방식에 국한하여 평가의 범위를 정하기로 한다.

유물론 중심의 역사관을 평가하기 전에 그 特性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물론적 요소가 면면히 이어져왔다는 繼續性 강조, 둘째, 유물론과 관념론의 투쟁의 역사였다는 二分法的 圖式, 셋째, 현재중심적인 시각에서 보는 階級主義 觀點이다. 이는 조선역사의 전개가 現實의 利益을 위해 복무해야 한다는 현실적 관심의 투영과 유물사관에 의해 역사를 기

74) 북한역사를 평가할 때의 評價者 立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본다. 첫째, 북한역사서술자체를 수용할 것을 전제하고 평가하는 경우와 둘째, 정통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평가하는 경우와 셋째, 남한의 역사연구업적과 비교하면서 평가하는 경우이다. 『哲學研究』 제23집(1988 봄)에 실린 성태용의 “『조선철학사』의 史實性 문제”는 첫째 관점을, 李俊模의 “『조선철학사』에 적용된 유물사관”은 둘째 관점을 유지하면서 쓴 글이며, 『남북한 역사인식 비교강의(근현대편)』(서울: 일송정, 1989)에 실린 글들은 셋째 관점을 유지한 예라 할 수 있다.

75) 앞 절에서 본 바와 같이 이데올로기에 의해, 또 정치체제에 의해 형성된 현실적 관심이 역사연구의 자료와 대상의 선택, 이에 대한 해석과 평가문제에 깊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간의 비교는 소모적인 논쟁일 수 밖에 없다. 더구나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남북한 모두 근본적으로 그 출발자체에서부터 歷史歪曲의 가능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술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연유하는 당연한 결과다.⁷⁶⁾

이런 시각에서 서술된 북한의 '역사'는 몇 가지 면에서 肯定的인 面도 있다. 그 동안 남한학계가 상대적으로 소홀히 해왔던 측면인 社會經濟史的인 背景理解의 중요성을 내세우는 점, 被支配階級 中心으로 역사를 再評價하려는 점, 그리고 金時習, 張維, 任聖周 및 발해의 철학사상 등 우리 시각에서 크게 부각되지 않았던 인물이나 요소들이 유물론적 입장에서 평가된다는 점이다. 다양한 시각을 통한 다양한 접근에 의해 역사가 전체적으로 재규명된다는 점에서 수용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問題點도 심하다.

먼저 북한역사 인식틀의 기본인 唯物論/觀念論의 二分法的 圖式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북한에서는 이 문제를 주로 '氣'와 '理'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氣는 물질적 실재, 理는 관념적 혹은 정신적 실재로 정의하고 氣를 중요시하는 사상은 唯物論, 理를 앞세우는 사상은(客觀) 觀念論으로 정식화하고 있다. 따라서 氣의 존재·운동의 근거를 理에다 두고 있는 理의 철학인 주자성리학은 당연히 관념론으로 규정될 수 밖에 없다.⁷⁷⁾ 그런데

76) 최봉익의 『조선철학사상사연구』(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5), pp.1-13에는 조선철학사를 기술하기 위한 지침이 실려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은 조선철학사상연구의 유일한 지도적 지침'을 요약하면, ①현실의 혁명적 이익에 철저히 복무하도록 ②유물론/관념론의 투쟁 및 진보적/반동적인 사상의 투쟁으로 보도록 ③사회경제사적인 관점과 노동계급성의 원칙을 지킴으로 ④주체사상이 유일한 지침이 되도록 ⑤인종허무주의와 사대주의를 철저히 배격하도록 ⑥북고주의를 배격하도록 되어 있다.

77) 이 입장은 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가 펴낸 『철학사전』(1985년판)에 잘 나타나 있다. 그 내용의 일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주자 성리학은 정신적 실체인 '리'를 봉건유교도덕의 기초적 규범으로, 세계의 시원과 본질로, 모든 사물현상들의 생성과 운동변화를 결정하는 세계의 주체자로 내세울 뿐 아니라 그것을 인간의 선천적인 품성(본연지성)과 선천적인 의식(도심)이라고 함으로써 봉건유교도덕, 봉건적 윤리도덕질서를 합리화하고 옹호하였다."(p.366)

이와 같은 도식에 기초한 해석은 큰 오류를 낳고 있다.

왜냐하면 理氣에는 애당초 정신과 물질의 개념구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기일원론, 이기이원론을 떠나 그것이 무엇이든 현상계에서의 작용은 氣이고 그 작용의 근거는 理라고 보던 것이 당시의 성리학자들이 성리학을 이해하던 기본틀이었다.⁷⁸⁾ 따라서 理氣論에 유물론과 관념론이라는 인식틀을 단순하게 적용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理는 관념적 실재, 氣는 물질적 실재라는 규정도 잘못됐을 뿐 아니라, 이를 토대로 관념론/유물론적 평가를 단정하는 것도 잘못됐다.

그렇다면 조선시대의 徐敬德, 任聖周, 崔漢綺 등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氣 철학자로 규정하는 것도 무리가 따른다. 그들이 氣를 강조한 경향은 분명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理를 배격하는 데서 나온 것은 아니다. 그들도 理를 인정하면서 氣를 논변한 것이다. 따라서 북한에서 氣를 강조한 점만 내세워 그들을 유물론자로 규정하는 것 또한 억지다.

결국 북한에서의 理氣論에 대한 연구성과는 유물론과 관념론의 투쟁이라는 도식에 맞추기 위한 논리제공의 역할을 해주고 있을 뿐이다. 요컨대, 마르크스주의에 바탕을 둔 관념론과 유물론의 구분을 조선철학사의 흐름을 좌우하는 중요한 개념들이다 단순하고 거칠게 적용하는 과정에서 논리의 무리가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논리전개의 무리는 고대사상의 해석을 ‘氣概念’으로 출발하는 데서 이미 시작되고 있다.⁷⁹⁾ 氣概念은 북한학계가 민족사상사를 유물론적·변증법적 사상체계로 형성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근간으로 삼았던

78) 이는 이황의 “四端理發而氣隨之 七情氣發而理乘之” 또는 이이의 “四端亦是氣發而理乘之”라는 유명한 명제에서 확인할 수 있다. 惻隱·羞惡·辭讓之心의 정감적 측면과 是非之心의 이지적 측면이 있는 四端도 다같은 정신(心)이요, 정감적 작용이 주인 七情도 정신의 한 측면인 것이다.

79) 김정곤, “북한의 古代哲學 연구성과에 대한 분석”, 池敎憲·沈慶昊 외, 1991, 앞의 책, p.18, pp.37-40.

개념이다. 그런데 북한 고대의 氣思想이나 삼국시대까지의 氣思想은 충분한 자료에 의하여 연구된 것으로 보기에는 氣思想에 관한 전거가 빈약하다.⁸⁰⁾ 오히려 “고대사상사의 유물론적·변증법적 사상으로서의 체계화”라는 정치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李奎報, 金時習, 徐敬德으로 이어지는 氣思想을 거꾸로 소급한 느낌을 주고 있다.⁸¹⁾

기와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첨가할 것은 氣의 개념이 일반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李奎報, 金時習, 徐敬德, 任聖周, 崔漢綺 등의 기철학자들의 氣概念이 어떻게 연관성을 지니며 또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은 없이 단지 氣의 繼承性만 강조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는 現在中心的 시각에 대해 검토할 차례이다. 북한역사기술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현실적인 강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표현되고 있다. 즉 획일적이고 단순한 관점을 역사전반에 걸쳐 무차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데 문제가 있다. 現在의 意識이 과거의 사실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면서, 모든 사상을 평가하는 데 있어 지배계층의 이익을 옹호하는 사조는 관념론이고 반동적이며, 피지배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조는 유물론적이며 진보적이라는 판단이 언제나 선행한다. 이러한 판단이 바탕이 되어 진보적인 사상에 대해서는 그 의의를 확대·과장하는 방향으로, 반동적인 철학에 대하여는 그 의의를 전적으로 무시하거나 ‘현실적 이익에 복무하는’ 일정한 부분만의 의의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서술하고 있다. 앞절에서 본 실학사상에 대한 肯定/否定의 양면적 평가가 이를 잘 말해준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덧붙일 것은 역사서술에서 현실의식의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는 사실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敎示가 역사나 철학사 속에 고덕체로 출현하는 것이다. 다루고 있는 시대와는 관계없이 주제와 엇비슷한 교시 일부분을 인용하는 방식은 북한역사관의

80) 앞의 글, pp. 39-40.

81) 앞의 글, p.40.

現實收斂의 특징을 단적으로 말해준다. 또한 봉건시기 인민들이 왕을 중심으로 한 지배계층과 국가를 구별하면서 계급투쟁을 한 것처럼 “원쑤인 왕놈과 지배계층무리들” 및 “나라를 지킨 인민들의 애국투쟁” 등으로 표현하는 것은 현재관점에서 과거를 操作化하는 또 다른 예이다.

특히 李滉의 사상에 대해, “그의 사상은 리조 봉건통치배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고 리조봉건시기 전기간 봉건통치의 사상적 도구로 복무하였으며, 일제침략자들은 물론 미제침략자들과 그의 앞잡이 남조선괴뢰도당에 남조선 인민들의 계급의식과 투쟁의식을 마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써 여전히 이용되고 있다”⁸²⁾라고 평가하는 방식은 과거를 현재시점에서 操作化하는 또 다른 종류의 예라고 할 수 있다.

세번째로 검토할 대상은 북한역사관에 나타난 唯物論의 性格糾明이다. 북한에서 유물론의 계승을 주로 계급투쟁의 현상 속에서 서술하고 있음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古代에서는 음양오행사상의 종교적·미신적 요소를 착취계급의 통치이론으로 원용한 반동적 귀족 노예소유계급과 음양오행사상의 유물론적 요소인 기계론을 받아들여 고유한 유물론적 철학체계를 만든 진보적 계급간의 투쟁. (2) 三國時期에서는 불교, 유교, 도교를 둘러싼 보수적 집권귀족과 신흥귀족계급의 대립. (3) 高麗時期는 불교와 주자학을 놓고 구세력을 대표하는 대토지 소유자와 신흥세력을 대표한 중소토지 소유자와의 갈등. (4) 李朝에 와서는 14세기말 15세기초 불교의 주관관념론과 이를 반대하는 주자성리학의 객관관념론이 지배계급의 내부에서 정치투쟁과 관련하여 치열하게 전개된 후, 15세기 중엽부터 유교내부에서 발생한 氣一元論의 唯物論과 주자성리학적 관념론과의 투쟁이 정면에서 나서게 되었으며, 16세기에 이르러서는 유물론과 관념론과의 투쟁과 함께 주자성리학 내부의 유물론적 경향과 관념론적 경향간의 투쟁이 이에 동반하는 양

82) 최봉익, 1986, 앞의 책, p.193; 성태용, 앞의 글, p.46 주33) 참조.

상. 즉 주자학의 외피 속에서 주자학 내부의 思想鬭爭 형식을 통하여 관념론과 유물론의 투쟁이 수행되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그런데 위의 대립양상을 볼 때, 엄격한 계급주의적 관점에서 목적인 바와는 달리, 북한 '역사'의 대립투쟁의 주체는 同一한 支配階級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서로 상이한 계층집단에 속하지만 결국은 둘다 노예나 농민들에 대해 지배계급의 위치에 서 있는 것이다. 물론 마르크스도 새로운 사회 단계로 진행되는 일정시기에 있어서는 지배계급이 서로 다른 성향을 가진 두 층으로 분열된다고 말한 바 있으나, 북한의 경우는 이와 다르다.

아름든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는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두 계층이 모두 지배계급이라는 동일한 범주에 속할 때, 이 두 입장을 質的으로 대립·투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다. 왜냐하면 유물론과 관념론이 동일한 지배계급내의 입장일 경우, 이러한 형태의 유물론은 이른바 '제도권 유물론'이란 한계성을 안지 않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유물론이라는 또다른 관념론이 형성되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결국 관념론 못지 않은 '觀念論的인 唯物論'과 관념론과의 관계를 소위 사상투쟁으로 상정해야 하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북한의 유물론은 '體制內的인 唯物論'이란 성격을 띠게 되는 것이다.

한편 실제 사상투쟁의 전개과정을 살펴보면 지배계급과 인민의 투쟁역사가 아니라 주로 支配階級內部的 투쟁역사로 기술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⁸³⁾ 또 혁명적인 유물론을 지향했던 것과는 달리 실제로 체제내적 유물론으로 귀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민중심의 계급사관에 기초한 역사서술은, 단지 필요한 사건을 사이사이 끼워넣는 모자이크식 서술을 하거나⁸⁴⁾ 주로 외래침략자들을 물리치는 과정에서 人民들의 투쟁정신을

83) 이 현상은 오히려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역사의 흐름이란 일반적으로 볼 때, 최고의 지배계층과 최고 지배계층으로 올라가려는 바로 그 밑의 계층간의 갈등에 의해 점철되어 있기 때문이다.

84) 은달의 애국명장론, 사노 만적의 반봉건사상 등이 그 좋은 예이다.

강조하는 식에 그치고 있다.

이는 북한 역사관이 마르크스의 유물사관의 외양만 대입시킨데서 연유한다. 즉 한 시대의 지배적인 생산양식을 매개로 한 주체와 객체의 상호관계를 서술하는 방식을 택하지 않은 데 원인이 있다. 주어진 현실 속에서 자연과 인간을 매개하는 社會的 勞動概念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지 물질적인 것을 제일차적인 것으로 보는 '순수한 유물론'에서 역사를 출발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점은 오히려 북한의 정치사상의 발전사에 부합되는지도 모른다. 결코 그렇게 주장하지는 않았지만, 주체사상보다 더 진보적이고 자주적이고 인민적인 사상이 먼저 존재해서는 안 되기에 주체사상 이전의 유물론은 소박하고 순수한 체제내적 유물론에 머물러야 하는 운명인지도 모른다. 기껏해야 공상적 사회주의나 포이에르바하의 유물론 수준에 그치는 것에 만족해야 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이분법적인 '짝개념' 인식틀로 인한 單純循環論證의 問題點을 들 수 있다. 역사인식의 기본개념을 유물론과 관념론, 진보적 사상과 반동적 사상, 변증법과 형이상학, 氣와 理라는 짝개념으로 구분한 뒤, 전자는 전자끼리, 후자는 후자끼리 연관시켜 논리를 전개하는 하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 및 일반화를 초래할 소지가 크다. 특히 한 사람의 사상을 이 틀에 넣어 氣論者이기 때문에 唯物論者이며 변증법적 사고를 하는 진보적인 사상가로 단정하는 것은 역사를 왜곡할 가능성이 크다. 즉 이러한 기술방법은 과거의 사상을 산출한 시대적 상황과 그 사상의 전체계를 상호연관지어 평가할 수 없게 만든다.

V. 結 論

이 글은 크게 두 가지 의도에서 씌여졌다. 하나는 순수한 학문적 차원에서 북한이 민족역사를 어떻게 체계화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보고자 한

것이고, 둘째는 학문의적인 차원에서 북한 '역사'에 영향을 미친 정치사상적 요인은 무엇이고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보고자 한 것이었다. 사실 어떤 역사학자도 역사를 연구하고 체계화하는데 정치성이나 사상성이 개입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에 의하면 북한에서 학계에 미친 정치적, 사상적 영향은 너무나 절대적이며, 연구결과도 이에 따라 결정적으로 좌우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한마디로 북한에서의 歷史는 정치의 시녀였다. 국가 공식이데올로기의 목적론적 성격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現實의 正當化를 위해 최대한 봉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 즉 현재의 정통성 확립을 위해 社會的 記憶인 역사는 매우 의도적인 방식으로 '국유화'되어온 것이다. 북한의 역사학은 실천을 위한 연구가 되지 않을 수 없었으며, 현재의 이익을 위해 복무할 수 밖에 없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2절 역사관의 변천단계와 변화요인에서는 먼저 역사관이 변할 수 밖에 없었던 政治的 背景을 고찰하였다. 시기별로 살펴볼 때 북한 역사관은 스탈린주의의 붕괴로 인한 체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확립되기 시작했으며, 그 과정에서 민족주의적 요소가 높이 제기되다가 주체사상의 확립과 더불어 민족주의와 김일성 유일사상이 결합한 역사관이 형성됨을 볼 수 있었다. 이런 과정을 唯物史觀 의존기, 民族史觀 강조기, 主體思想 형성기와 수정기로 나누어 살핀 후, 여기서 나타난 북한의 역사평가기준을 유물론적 요소, 변증법적 요소, 진보적인 주체적 요소로 추려 보았다.

제3절에서는 평가기준의 하나인 唯物論的 要素에 초점을 맞추어 북한 역사의 연구내용을 검토하였다. 북한관 유물론은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북한원전들에 나타난 내용에 따라 ①조선조 이전 ②16세기 ③17세기 ④18세기 ⑤19세기 및 ⑥실학과와 유물론으로 나누어 파악하였다. 그 결과 북한에서는 역사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사상사 속에 유물론적 철학체계가 繼承되어 왔음을 강조하고 있고 특히 자체적인 발전사를 나타내고 있

었다. 氣概念을 중심으로 유물론적 흐름을 서술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북한 역사해석에서는 李奎報, 金時習, 徐敬德, 張維, 任聖周, 崔漢綺 등이 유물론자로서 높이 평가받고 있었으며, 특히 徐敬德, 任聖周, 崔漢綺는 유물론의 맥을 잇는 주요 연결고리로서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끝으로 제4절에서는 유물론적 요소의 계승성, 유물론/관념론의 이분법적 도식, 현재중심적 시각의 제급주의 관점을 강조하는 유물론 중심의 북한역사관을 그 특성에 국한하여 評價하였다.

이제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당연히 제기될 수 밖에 없는 主體思想과의 關聯性을 논하면서 끝맺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면, “주체사상은 유물론인가?”라는 질문에 당연히 “주체시대에 도래한 유물론의 결정체”라는 답이 예상된다.

그러나 북한의 논리는 그렇지 않다. 한마디로 주체시대에는 유물론이나 관념론이나,⁸⁵⁾ 변증법이나 형이상학이나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와 같은 과거의 이념적인 대립에 빠져 투쟁을 하는 것은 ‘哲學의 根本問題’⁸⁶⁾가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주체사상은 유물론에

85) 이 글에서는 주체사상이 唯物論的인가, 觀念論的인가를 규명하는 문제까지는 다루지 않는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대화, “북한에서 말하는 주체사상,” 김남식 외, 『북한사회의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 (서울: 현장문화사, 1989), pp.189-208; 유초하, “원리체제에서 본 주체사상의 철학적·정치적 문제,” 『철학연구』, 제25집 (1989, 여름), pp.47-83; 신일철, “북한 ‘주체의 역사관’의 사상적 빈곤,” 김정배 외, 『북한이 보는 우리 역사』 (서울: 을유문화사, 1989), pp.13-38 참조. 북한원전으로는 김정일의 “주체철학이해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1974. 4. 2), “주체사상에 대하여”(1982. 3. 31),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자”(1983. 5. 3),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1986. 7. 15) 참조.

86) 哲學의 根本問題란 철학이 무엇보다도 먼저 풀어야 할 기초적인 문제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 문제를 해명해야만 기타의 사상이론적, 방법론적인 문제들이 더불어 해명될 수 있다고 한다. 『철학사전』(1985년판), p.721.

근거하고 변증법을 따르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바로 人間의 위치와 역할을 규명하는 것이 主命題라는 것이다. 이러한 인간위주의 사상을 근거로 할 때 모든 과거의 이론적인 논쟁에서 탈피할 수 있고 참다운 인간화의 혁명을 성취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말은 주체사상이 나오기 이전 시기에는 물질과 의식, 존재와 사유의 관계를 哲學의 根本問題로 삼아왔으나, “세계의 시원문제가 유물론적으로 밝혀진” 이상, 主體思想은 “역사상 처음으로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문제를 철학의 근본문제로 새롭게 제기”하게 되었다는 뜻이다. 즉 앞에서 본 바와 같은 朝鮮歷史를 흐르는 唯物論은 이제 더 이상 주체사상의 關心事가 아니라는 논지이다. 물론 조선의 시원문제를 유물론적으로 밝히고 주체시대가 도래하기까지 유물론적 요소가 끊임없이 이어져 옴을 규명한 의의는 높이 평가하지만 그 이상은 아니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주체사상은 이 모든 것을 극복한 데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북한 역사관에 나타난 유물론”의 位相과 그 限界가 분명해진다.

〈참 고 문 헌〉

- 과학원 철학연구소 편. 『다산선생 탄생 200주년기념문집』. 평양, 1962.
- 김일성. 『사회과학의 임무에 대하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9.
-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조선문화사』.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7.
-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조선전사』 1-10.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9-1980.
-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조선통사』(상).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7.
- 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 『철학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 사회과학출판사. 『정치사전』. 평양, 1973.
- 정성철. 『실학파의 철학사상과 사회정치적 견해』.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4.
- 정성철. 『조선철학사』(Ⅱ).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7.
- 정진석·정성철·김창원. 『조선철학사』(상). 평양: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1960.
- 최봉익. 『조선철학사 개요』.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6.
- 최익한. 『실학파와 정다산』. 평양: 국립출판사, 1955.
- 강인구·이성미 외. 『북한의 한국학 연구성과 분석』(역사·예술편). 서울: 정신문화연구원, 1991.
- 경남대학교 국동문제연구소. 『북한자료집 김정일저작선』. 서울: 경남대학교출판부, 1991.
- 국토통일원. 『조선노동당대회 자료집』 I-IV. 서울: 국토통일원, 1988.
- 김정배 편. 『북한이 보는 우리 역사』. 서울: 을유문화사, 1989.
- 안병우·도진순 편. 『남북한 역사인식 비교강의』. 서울: 일송정, 1989.
- 지교헌·심경호 외. 『북한의 한국학 연구성과 분석』(철학종교·어문편). 서울: 정신문화연구원, 1991.
- 성태용. “『조선철학사』의 사실성 문제,” 『철학연구』, 제23집(1988 봄),

pp.35-48.

유초하. “원리체계에서 본 주체사상의 철학적·정치적 문제,” 『철학연구』,

제23집(1989 여름), pp.47-83.

이광린. “북한의 역사학,” 『동아연구』, 제16집(1988, 12), pp.37-63.

이남영. “북한의 『조선철학사』서술의 특징과 문제점,” 『철학연구』, 제23

집(1988 봄), pp.5-14.

이준모. “『조선철학사』에 적용된 유물사관,” 『철학연구』, 제23집(1988

봄), pp.15-34.

한영우. “북한의 역사학,” 『한국의 문화전통』. 서울: 을유문화사, 1988.